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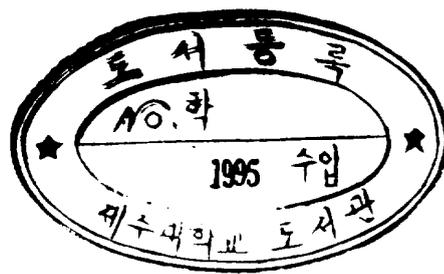
碩士學位論文

朝天 民謠의 特異性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韓 基 興



1994年 12月

Characteristics Of The Fork Songs Of Chochon

Ki-Heung, HAN

(Supervised by Professor Yong-Joon, Hyu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4. 12.

朝天 民謠의 特異性

指導教授 玄 容 駿

韓 基 興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4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韓基興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4年 12月

차 례

I. 서론	1
II. 조천 민요의 배경	3
1. 역사적·사회적 배경	3
2. 전승집단	7
III. 조천 민요의 전승양상	10
1. 노동요의 전승양상	11
2. 창민요의 전승양상	22
IV. 조천 민요의 특이성	50
1. 분류상	50
2. 사설상	56
V. 결론	56
《참고문헌》	60
《부 록》	63
《Summary》	109

I. 서 론

지금까지의 민요 연구는 고전문학 연구를 위한 보조 연구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오다가, 최근 국문학의 범주내의 한 갈래로서 구비문학의 형태로 자리 잡은 이래 타구비문학과 함께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 민요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장르와 요종(謠種)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민요 연구도 이에 못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민요 연구 방법도 현장론적 조사 방법에 의해 채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민요의 위상을 고찰해 나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요 전승의 기층 단위인 부락 단위를 중심으로 한 개별적 논의는 기존 조사 자료의 미흡과 동시에 연구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에서 아직껏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마을단위의 전승 집단의 개별적 연구가 점점이 쌓여 보편적인 이론으로 전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연구 범위를 마을 단위로 한정하고, 한 마을의 역사, 문화사적 배경과 기존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의 채록을 통해 개별 문화 공동체속에 나타나는 민요 전승의 양상과 특이성을 고찰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연구는 제주도 동부 지역 중 예로부터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조천(朝天) 마을을 그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천 마을은 설촌 당시부터 한국 본토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고, 과거 문화, 문물의 유입지였으며 조정에서 파견되는 수많은 목사와 유배자들의 출입이 빈번했던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창민요(통속민요)가 특히 발달하여 조천 특유의 민요가 전승되어 왔다. 이처럼 지역적 특수성으로 기인하는 조천 민요의 특이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과의 대비도 아울러 살피고자 한다. 또한 조천 민요를 현장론적인 방법으로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문화적 배경과 민요 전승의 유기적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제주도 민요속의 조천 민요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한국 민요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제주도 민요에 관한 연구는 高橋亨이 한국 민요에 관심을 갖고 제주도 민요를 조사한 1929년 이래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제주도 민요에 관한 연구는 초창기 자료 수집과 채록을 바탕으로 한 자료집 간행의 수준에 머물렀으나, 1970년대 들어 제주도 민요의 연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활발히 전개된 제주도 민요 연구는 제주민의 삶과 민요와의 상관성, 민요의 주제와 소재, 문체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으며,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별적, 요종별로 연구가 잇달아 진행되었다.¹⁾ 여성노동요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 민요의 총체적 구조를 파악한 연구²⁾도 나왔고 제주도의 민요 중 창민요(통속민요)에 초점을 맞춰,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민요의 연구는 문학적, 민속학적, 음악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전됨으로써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면서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활성화되어 간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달리 민요 연구의 한 방법으로 한 마을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서 조사될 수 있는 모든 민요를 수집함으로써 마을 민요의 양상을 밝혀내고 그 지역의 민요의 특이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구비문학의 연구방법론은 여러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민요의 연구는 어느 하나의 고정된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학 연구의 여러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지만, 민요 연구는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제 1의 조건으로 현장조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민요학회 공동의 현장조사 참여 및 개인적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정리, 문화사적, 역사적 측면에서 조천 민요를 다루고자 하였다. 민요는 사실, 가락, 기능을

- 1) 김승태, "제주도의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2.
- 좌혜경, "제주 전승 동요 연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5.
- 강성균,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변성규, "제주도 서우젓 소리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 강문유, "제주도 상여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양영자, "제주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 2) 金榮敦, 「濟州島 民謠 研究 : 女性 勞動謠를 中心으로」, 조약돌, 1983.

모두 갖춘 노래이므로 이 모든 관점에서 고찰해야 하나 이글에서는 사설적 측면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글에 활용된 자료는 필자가 참여한 민요학회의 3차에 걸친 조사와 수차례에 걸친 개인적인 조사, 기존의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조사일정과 활용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조사일정

- ① 민요학회 1차 조사 : 1989. 11. 11
- ② 민요학회 2차 조사 : 1989. 12. 3
- ③ 민요학회 3차 조사 : 1994. 3. 19

자료집

- 金榮敦, 「濟州島 民謠 研究(上)」, 一潮閣, 1965.
-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1993.
-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해설집」, 문화방송, 1992.
- 「韓國口碑文學大系 9-1~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고려원, 1980~1983.
- 「韓國口碑文學大系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고려원, 1980.
- 「韓國口碑文學大系 2-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고려원, 1984.
-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V」, 集文堂, 1975, 1980.

II. 조천 민요의 배경

1. 역사적, 사회적 배경

가. 역사적 배경

조천 민요를 살피기 위해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다. 조천관(朝天館)으로 지칭되어 온 이 마을은 기록에 의하면 탐라의 중심에서 동쪽 25리 포구에 위치하여 출륙하는 사람들의 풍향 관측소였다고 한다. '조천(朝天)'이란 명칭은 여기서 연유되었다고 하며 이로 말미암아 마을의 형성은 매우 일찍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천읍이 행정 체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조선조 중엽으로 알려져 있다. 고

려 의종(1153) 때 탐라군(耽羅郡)을 탐라현(耽羅縣)으로 고치고, 충렬왕 26년(1300년)에 현촌제(縣村制)를 실시하고, 현촌으로 14개 마을을 두었다. 조선 초기 제주도는 1목(牧) 2현(縣)의 행정 체제로 개편되었고, 산북 지역은 제주목(濟州牧)의 관할하에 두고, 동쪽의 신촌현, 함덕현, 김녕현과 서쪽의 귀일현, 고내현, 애월현, 광지현, 귀덕현, 명월현을 귀속시키고, 대정현(大靜縣)은 예래현, 차귀현, 그리고 토산현(兪山縣), 홍로현(烘爐縣)을 정의현(旌義縣)에 편입시켜 자연히 취락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행정 체제가 조선조 400년간 유지되었고, 조천읍은 조선조 중엽에 와서 탐라가 제주로 개칭되는 동시에 현촌제가 폐지되고 주군제(本州, 旌義, 大靜)가 실시될 무렵 제주군 치하의 좌면(左面)에 속하게 되었다.

1874년 지방행정 쇄신으로 동북리 이동을 구좌면(舊左面)으로 하고, 북촌리 이서에서 신촌리 이동 10개 리를 신좌면(新左面)으로 호칭하였다. 신좌면은 1935년 조천면으로 개칭하였고, 1985년 조천읍으로 승격되어 조천리를 포함 12개 리를 두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마을의 취락 형성은 일주도로 및 해안선에 접해 약 8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촌가(村家)를 이루어 옛날의 조천관을 이루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천관은 고려 말엽에 당시 조정에서 인천관, 부산관, 조천관(1374년 공민왕 23년)으로 3관을 설치할 때 조천 포구에 설치한 것인데, 이는 당시 자연항으로서 조천 포구가 제주에선 제1양항으로 여겼던 까닭이며 더구나 북제주군에서는 조천관 곳이 가장 멀리 내달아서 풍파를 덜게 하는 데 양호한 조건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조선 시대에는 조천포가 해상 활동의 중심지이면서 명신, 유배자들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또 조천은 양반 토호 세력의 온상지이면서 벼슬한 유학자가 많았기에 옛날 명사들의 강인한 기질과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정신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근대에까지 이어져 일제(日帝) 식민지 시대 일인(日人)들에 대항한 불굴의 독립정신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조천에는 일본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고 한다. 조천 주민 모두가 뚝뚝 뭉쳐 일본 상품 불매운

등을 벌였기 때문이고, 지역민에 의한 민족 정신의 발로로 나타난 결과다.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일어난 1919년 3. 1운동이 제주도에서는 유독 조천에서만 같은 시각에 일어난 것은 조천인 특유의 자주적 정신과 기질을 짐작케 한다. 이런 점에서 조천 마을 사람들은 일찍부터 조천 포구를 이용하는 목민관 및 관리들과 친교를 이루면서 본토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고, 이것이 관촌 의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에도 그 정신과 기질은 면면히 흐른다.

주민 이동은 당시의 조천민이 해안선 편으로 음료수를 따라서 해안으로 내려왔다고는 하나, 비옥한 토지와 양호한 환경을 찾아서 해안으로 온 것이리라 본다. 이러한 것들이 조천이 해촌(海村)이면서 양촌(良村)이 되었던 배경을 이룬다.

특기할 것은 조천은 과거 관모공예(冠帽工藝), 특히 망건 작업이 성행하였다. 고려말 원(몽고)의 목마장 설치와 우마 방목으로 관모 공예의 주재료인 말총, 쇠꼬리털이 많이 생산됨에 따라 일찍부터 이웃 마을인 화북, 삼양, 신흥, 함덕 마을과 더불어 관모 공예, 특히 조천의 경우는 망건 작업이 부업 혹은 주업으로 성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현종 5년 3월조에 “임금이 제주의 풍속을 묻자, 제주의 여자라면 누구나 갓모자를 걸고 육지부에 팔고 식생활에 이바지한다.”는 기록이 있고, 1925년 관모 공예 종사 홑수 및 연간 생산량은 갓양태, 망건, 탕건 순서였는데, 당시 관모 공예는 썩 극성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천 마을은 여러 집에 망건청을 두어 망건을 주로 생산하였으며, 이것은 제주도 인근 마을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조천의 오일장날마다 관모 공예품이 거래되었고, 또한 조천 포구를 통해 육지부 상인들과도 거래했을 정도로 망건 작업이 성행하였다.³⁾

이러한 조천의 지역적 특성은 조천 특유의 민요를 생산하였고, 민요 집단에 의해 현재까지 이에 따른 민요를 유달리 간직하게 되었다.

3) 김민규, 「조천읍지」, 제주문화, 1991.

나. 사회적 배경

조천리는 제주시 동북방 12km 지점에 위치한 읍소재지로서, 이 지역 교통, 문화, 교육, 행정의 중심지다. 이웃 마을은 동쪽으로 5리(2km)에 함덕리가 있으며, 서쪽 마을 신촌리는 3리(1.2km)에 위치해 있고, 대흘리가 남쪽 15리(6km)에 있고, 북쪽은 바다와 접해 있다. 이 마을은 상동, 중상동, 중동, 하동의 4개동으로 나누어져 서로 밀집되어 있으며, 자연부락인 신안동, 양천동, 봉소동의 3개 동을 포함 7개 동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국도인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해안쪽으로 4개 동이 위치해 있고, 산간쪽으로 자연부락인 3개 동이 자리잡고 있다. 1993년 현재 1421 가구에 5070명(남 2,456, 여 2,614)⁴⁾에 이르는 대규모의 마을로서 배후 근교 농업 지대를 배경으로 한 농산물 저장 및 중간 집산지이며 감귤, 축산이 주산물이다.

기후는 연중 온화한 편이며 동절기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근해에는 난류가 흐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동절기에는 북서 계절풍이 연속 강하게 분다는 것과 하절기에 우기가 길다는 것이다. 강수량은 6~8월이 가장 높고, 다음 3~5월에 비가 많은 편이다. 강수량은 연평균 1,232mm로 다소 많은 편이나 하절기에 태풍과 폭우가 간혹 있더라도 하천이 없으므로 물의 범람이 없어 위험도는 적다. 지질은 토양의 질이 좋아 도내에서는 최상급에 속하며 이웃 마을인 신촌의 경우도 땅이 비옥하여 밭이 평야처럼 넓게 펼쳐져 있어 농림, 축산업의 적지가 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은 46개 반으로 대단위 부락을 형성하고 있다. 주민의 성씨별 구조에서도 40성이나 되는 많은 성씨가 분포되어 있다.

김씨는 조천에서 가장 많은 가구를 가지고 있고, 다음 고씨, 이씨, 한씨, 박씨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김씨는 과거 판관, 현감을 지냈던 분들로 부터 현재 마을의 공로자 및 유지, 명사들이 대부분 김씨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은 과거 김씨가 차지하는 마을에서의 위치를 짐작하게 한다. 《조천읍지》

4) 「제33회 통계연보」, 북제주군, 1993.

의 입신양명 고인들 인사록의 대부분이 김씨라는 사실도 이를 입증한다. 학계 만 보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명사로서 이름을 날리는 분들이 많다.

토지 이용 현황으로서는 총 865ha에 전이 204.3ha, 과수원이 278.7ha, 대지가 28.9ha, 임야 325ha, 묘지 2.1ha, 기타 26ha에 이르는데, 1970년대부터 감귤이 고소득 경제 작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과수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다. 주요 작물로는 감귤, 대두, 녹두, 맥주맥이 생산되고 있으며 그외 참깨, 유채, 배추 등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마을의 여러 가구에서 한우, 돼지, 닭, 개 등을 사육하고 있다. 그외 마을 공동 목장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평원이 넓게 자리잡은 조천읍 등지에서 방목이 활발히 이루어져 말총 생산이 많았고 말총은 이 지방에서 왕성하게 이루어진 관모 공예의 주재료가 되었다.⁵⁾

2. 전승집단

민요가 생명력 있게 끊임없이 맥을 이어 온 이유의 하나는 전승집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승집단은 구비전승물인 민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의 생각을 사실 속에 투입시켰으며, 흥을 돋구는 일이나 또는 일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편으로 노래가 불려지게 되었다. 조천 민요도 이러한 전승집단에 의해 면면히 노래가 이어져 왔다.

확인된 민요를 대상으로 고찰하면 조천 민요의 전승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관변층의 창자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민을 중심으로 한 노동집단의 창자다. 이 두 부류의 창자가 한 지역에 공존하면서 각기 다른 층위의 노래를 부르며 민요 전승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결과, 조천에서는 다양한 요종이 불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노동집단에 의해 불려지는 노동요 등 타지역과 거의 다름이 없는 보편적인 민요가 있는가 하면, 관변층의 창자에 의해 불려지는 다른 마을에서는 전승되지 않는 특이한 노래가 자리잡게 된 것

5) 김민규, 앞의 책.
金寶鉉, 「朝天誌」, 濟一印刷社, 1976.

이다. 이러한 전승집단은 지역적 민요 전승에 결정적인 특징 형성을 이룩하며, 전승집단이 민요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다는 중요성을 지닌다. 조천의 전승집단인 관변층의 창자와 노동집단의 특성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관변층의 전승집단

조천의 창민요와 관련한 창민요의 전승집단은 주로 기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녀(妓女)는 창민요를 전승시킨 주된 전승자가 되었고, 점차 창민요는 민간에 유포되어 불려지게 되었다. 조선 중기 잡가는 고대소설, 판소리 등에 영향을 미치고 창민요로 이행되는 결과를 낳는데, 잡가의 경우 창자는 중인들로서 이들은 시중에 노래를 널리 퍼뜨리는 결과를 빚는다. 조천인 경우 과거 교통의 요지로서 한국본토와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이들의 왕래에 의해 자연스럽게 노래가 전해졌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가깝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자는 기녀들이었다.

약 500년 동안(1416~1914) 제주도를 3분 통치할 때에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으로 나누었는데, 제주의 관문인 조천은 조천관(朝天館)으로서 조정의 사신이 자주 머물렀던 곳이다. 한본토의 영향을 받은 제주도의 창민요는 제주목의 고을이었던 제주시까지 내, 대정현의 고을이었던 대정 고을, 정의현의 고을이었던 성읍마을과 조천 등 일부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이들은 모두 관변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과거 관이 들어섰던 곳에서는 소속된 관가나, 기녀들이 있었던 때문이다. 《諸家吟詠集》의 '耽羅竹枝詞'⁶⁾에 보면

觀德亭前簇繡旗 風流太守上山時
牙兵妓隊新粧束 擁出藍輿向翠微

이 글에서는 관덕정 앞뜰에서 사또가 산행을 할 때 남녀를 옹위하여 한라산으로 향함에 병사와 기녀들이 몸단장을 새롭게 한다는 구절이 보인다. 이처럼

6) 吳文福, 『瀛洲風雅』, 제주문화, 1989, p. 85.

관변 지역에는 기녀들이 기거했기 때문에 창민요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하게 전승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요 전승자로서의 기녀는 자연적인 창자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소리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생활과 함께 자연스럽게 노래를 익히기보다는 노래 부르기 위해 익혀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부른 창민요는 비교적 기교가 발달했고, 사설이 정제된 편이며 선율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조천리에서 조사된 민요를 대상으로 후렴을 분석해 본 결과 창민요의 후렴은 대체로 의미가 나타나고 있고, 노동요에서는 모두 무의미 후렴이었다.

이러한 기녀에 의해 불러지던 창민요는 이들의 쇠퇴와 더불어 전승집단이 변경되게 되었고, 관변문화를 동경하고 열망하던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이후 일반 민간에 의해 창민요의 전승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창민요는 조천에서 풍부하게 전승되어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민요의 특이성을 형성해 주고 있다.

나. 농어민층의 전승집단

민요는 일반 백성들의 노래라는 점에서 민요의 향유층은 대체로 일반 서민들이다. 사람이 있고, 말이 있고 소리가 있을 때부터 일반 백성의 노래는 존재해 왔고, 민요는 오랜 기간 농어민들에 의해 불러져 온 것이다. 원시시대부터 노래는 일과 관련되어 불러져 왔고 일의 노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종류가 점차 집단성을 띠며 불러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일노래(노동요)는 일과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며 전승되어 현재의 노동요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들 노래의 전승 주체는 마땅히 일과 함께 생활해 온 노동집단이다. 이들 노동집단은 노래를 통하여 일의 어려움을 덜고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노래를 불렀으며, 노래 속에 사설을 실어 그들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일이 있는 곳에는 일노래가 있고, 거기엔 노동 주체인 전승집단이 있어 노래를 전승시켜 왔다.

노동집단의 전승자는 전문적인 창자가 아니라 노래를 일과 더불어 익히거나 삶의 휴식으로 불러온 자연적인 창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노동요의 창자는 어디서 누구에게 배웠느냐라고 물을 때면 하나같이 어깨 너머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것은 창자가 노래를 일부러 배워서 부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일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불러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노래는 창민요와는 달리 기교가 뛰어나지도 않으며 선율이 풍부하지도 않고 마음속의 소리를 저절로 밖으로 내뿜는 것이다. 필자가 조사해 본 조천리 일노래의 후렴을 보면 의미가 들어 있는 후렴은 한 편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여음구로서 박자를 맞추고 가락을 끄는 기능을 하게 되는 바, 원시적일수록 또는 노동이 힘든 노래일수록 사설의 의미는 단조롭고 여음만 존재하게 된다.

제주에서는 일노래가 대체로 보편적 특질을 지니게 되는데, 조천의 노동요인 경우도 독특한 양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농어업의 생산 노동 형태가 같기 때문에 다른 마을과 거의 공통된다. 이는 조천이 창민요를 전승시키는 특이성을 지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노동집단을 기반으로 한 일노래가 대체로 끊임 없이 전승되는 보편적 특질을 지닌 곳이라는 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은 조천이 제주도의 관문이면서 양촌이라는 이중적 특성을 지닌 마을에 기인하기도 하는 것이다.

Ⅲ. 조천민요의 전승양상

조천 민요는 전승 지역의 민중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히 한국본토에서 유입된 창민요⁷⁾가 풍부하게 전승된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이성이 두드러지

7) 여기에서 말하는 "唱民謠"란 "勞動謠"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놀이요"에 해당되는 민요이다. 창민요의 '唱'의 명칭과 함께 쓰이던 것으로는 널리 알려진 것으로 '타령', '판소리'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唱'은 '唄'를 위주로 하는 회곡적인 문학인 '창극'에서 '극'의 의미가 없어진 '창'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창민요인 경우 통속민요, 타령 등 여러가지로 부르기도 하지만, 뚜렷한 구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분류명을 때에 따라 가려쓰는 상황에서 여러 용어가 사용된다.

다. 제주도의 민요가 제주도의 민간 생활을 반영하듯이 조천 민요는 한 지역 민중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과 생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천은 앞에서 살펴 본 두 계층의 전승집단에 의한 이중적 특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노동요와 창민요를 전승하고 있다.

일반 서민들을 기반으로 맥을 이어 온 노동요와 관변층을 중심으로 전승되다 현재 민간에 불려지는 창민요를 가지고 조천 민요의 전승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노동요의 전승양상

지금까지 확인된 조천의 일노래, 곧 노동요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요

- ㉠ 밭밟는 노래 (밧블리는 소리)
- ㉡ 김매는 노래 (김질매는 소리, 진사디, 옛사데, 찻른사디, 아웨기)

(2) 제분요

- ㉢ 멧돌 노래 (꺾레꺾는 소리)

(3) 어업요

- ㉣ 해녀노래 (네젓는 소리)
- ㉤ 멸치후리는 노래 (멜후림 소리)

(4) 벌채요

- ㉥ 꿀베는 노래 (출비는 소리)

(5) 관망요

- ㉦ 망건 노래

(6) 잡역요

- ㉧ 불미 노래

각 노동요의 순으로 중요한 사설을 고찰해 보면,

① 김매는 노래 (진사디, 옛사데)

어허여랑	상사대야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검질짓고	굴너른밭디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소리로나	우겨근가자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어허여랑	사데로구나
어엉허야	뒤야로구나
산아산아	수영도산아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가운딜로	질이나나라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산에올라	옥을캐니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이름이좋아서	산옥인가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어허야뒤어야	방하로구나
어엉허야	뒤야로고나. 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한데 김이 많을 때는 장시간 일을 해야 하므로 긴 노래가 필요하다. 긴 노래이므로 일의 실태와 무관한 사설들도 노래에 섞여 나오게 되는데, 특히 <진사디>의 경우 이런 사설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옛사디>는 오래된 사데라는 뜻으로 <옛사데>라고도 부르는데, 남원읍 신예2리에서는 선율은 <행상소리>와 닮은 곡으로 인식되고 있다.⁹⁾ 이곳 조천리에서는 <김매는 노래>의 유형인 <진사디>가 구분

8)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이이완(여·77).

9) 한승훈, "제주도 김매는 노래의 분포 양상과 전승실태", 『민요론집2』, 민요학회, 1993, p. 407

되어 불려지고 있고 명칭에 있어서도 '진사디'로 구분해 쓰이는데, 후렴에 있어서는 '엥허야 디야로고나'로 구좌, 조천읍 어촌권 <김매는 노래>의 후렴과 동일하다. 위의 노래는 작업 과정과 개인의 소망을 표현, 민간의 정의를 노래하고 있다.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노래를 부르며 우겨가자는 내용이 노동요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제주도의 <김매는 노래>는 우선 <진사디>(긴사디), <쫓른사디>(짧은사디)로 나누어지는데, <진사디>는 대체적으로 가락이 느리고, 민간의 정의와 작업실태를 노래하는 경우가 있고, <쫓른사디>는 템포가 빠르고 작업의 실태나 과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다. <진사디>는 일을 시작할 때나 여유가 있어 심리적으로 안정되었을 때 불려지며 가락이 느린 편이다. 그러므로 사설도 길게 불려지는 편이다.

② 김매는 노래 (아웨기)

어허디허랑	사대로구나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아침사대는	일시작사대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낮이사대는	일버친사대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락서산으론	헤떨어진다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검질손도나	긋아나간다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관님도나	집으로가정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만역군덜도	집으로가정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잠깐전의나	다뭇쳐간다 ¹⁰⁾

10)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수천(여·63)

밭에서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김매는 노래〉의 사설에다 〈서우젓소리〉의 가락을 담아 ‘아웨기’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아웨기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개 굿판이나 놀이판에서 불려지는 〈서우젓소리〉의 가락이거나, 〈김매는 노래〉 속에 〈서우젓 소리〉의 가락이 융합된 경우다. 창민요의 형식인 〈서우젓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 속에 유입된 경우는 성산읍 난산리에서도 볼 수 있다.¹¹⁾ 구좌읍 동북리의 한 주민은, 김매는 데 〈아웨기〉를 노래하지 않는 이유로, “아웨기를 불러서 괜스레 신을 불러 해꼬지를 당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데¹²⁾ 이로 말미암아 〈아웨기〉의 명칭의 쓰임은 원래 굿판에서 흥을 내기 위한 민요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민요는 작업의 실태를 나타내며 민간의 정의를 표현한 노래이다. 아침, 낮, 저녁으로 일의 정도를 구분하였고 작업이 끝나 얼른 모두 집으로 돌아가게 됨을 꾸밈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해가 떨어져 집으로 가기 전에 일을 모두 끝마치겠다는 책임감과 근면성이 돋보인다.

③ 타작노래

타작노래
 어야도홍
 어야도홍
 어야도하야
 어야도홍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다듬어서

11) 강성균, 앞의 책, p. 4.

12) 한승훈, 앞의 글, p. 426.

초가삼간
 집을짓곡
 우물안집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어야도홍
 어요하야
 어야도홍아
 어야도홍
 어요하야
 지켰구나
 잡켰구나
 [일이 빨라지면서 템포가 빨라진다.]
 어야도홍
 어요하야
 어요하야
 요건진곡
 요놈을 때린다¹³⁾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타작 노래〉는 〈마당질 소리〉, 〈도리깨질 소리〉, 〈도치질 소리〉, 〈도깨질 소리〉 등으로 불리는데, 베어들인 곡식을 도리깨로 두들겨 장만할 때 부르는 노래로서 역시 전도에 분포되었다. 〈타작 노래〉의 리듬은 노동의 동작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럿이서 베어들인 곡식을 도리깨질을 할 때 한 사람이 한 동작을 하자마자, 다른 사람이 이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작을 하면서 사설을 주고 받고 한 사설에 하나의 휴지를 이루기 때문에 〈타작 노래〉의 율격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음보 설정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타작 노래〉는 1음보격에 속하며 이러한 1음보격의 노래는 대개 힘든 일이 요구되는 노동요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타작 노래〉는 대개 작업 실태를 노래하기 마련

13) 1994, 필자채록, 조천리 김유생(남·75)

로서 힘든 일을 하게 됨에 따라 노래 속에 그들의 정서가 사설 속에 용해되기 때문이다. 위의 〈해녀노래〉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노래하고 있다.

④ 멸치후리는 노래 (그물 당기는 소리)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어허어형	어야로다
베릿배가	주장이여
어야허야	어야로다
어이여랑	산이로다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베릿배가	주장이여
어야허야	어야로다 ¹⁵⁾

〈멸치후리는 노래〉는 전국 해안에 띄엄띄엄 분포되어 있는 노래로서 어업요이다. 멸치후리기는 해안의 모래밭이 형성된 마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옛날의 작업 실태는 찾아볼 수 없다. 일찍부터 기능이 사라지고 노래만 남아 있는 형편이라 사실이 풍부히 전승되고 있지는 않다. 필자가 제주도의 〈멸치후리는 노래〉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다른 노동요와 달리 전승이 어렵고 소수의 각편만 과거 멸치후리는 작업이 성행했던 곳과 관련지어 불러지고 있는데, 그 중 구좌읍 동김녕리의 〈멸치후리는 노래〉는 사실이 정제되고 꽤 다듬어진 편이다.

〈멸치후리는 노래〉의 사설은 작업의 힘듦으로 인하여 대개 작업 실태를 노래하게 되는데, 위의 내용에 있어서도 민간의 정의를 나타냈다가보다도 사실 내용이 작업실태와 관련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베릿배는 그물의 윗부분의 버리를 뜻한다.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베릿배가 주장이여’는 제주도 민요의 사설에 요중에 관계 없이 관용적으로 표현되는 구절이다.

15)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이이완(여·77)

⑥ 꿀베는 노래 (출비는 소리)

허야디야 산이로구나 에헤~ 에헤~
산도설고 물도설은데 에헤~ 흥애기로구나
하늬뭍름은 솔랑솔랑 불어온다마는 에헤
날씨는 굿어가고 오호~ 흥애기로구나
요출비영 쉼막영와두민 에헤~ 에헤~
동지선들 설한풍에 에헤~ 흥애기로구나
날씨는 짐척짐척 돼여가곡 에헤~
비가올까 날이줄까 모를로구나
에헤~ 흥애기로구나
저산중에 먹는뭍쉬덜야 에헤~ 에헤~
칠월백중 돼여가민 지쳐저온다
산은첩첩 칭산이여 에헤~ 에에~
물은점점 녹수로구나 에헤~ 흥애기로구나
칠팔월 눅새가 불어오면 에헤~
출을호저 밤낮이나 에헤~ 헤매는구나¹⁶⁾

〈꿀베는 노래〉는 마소에게 먹일 꿀을 배면서 부르는 소리로 전도적인 분포를 보인다. 꿀을 베는 일은 제주도 농가에선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기상이 나쁘면 꿀베는 일을 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날씨는 꼭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제주도의 전지역에서는 꿀베는 노래에서 날씨에 관한 사설이 거의 등장하지 않을 때가 없다.

뭍름아뭍름아 불을테민
하늬뭍름 불어오라¹⁷⁾

모든 농사일이 날씨와 관계 있지만 꿀베는 일은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위의 노래에서 보듯 날씨에 대한 사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위의 노래에서

16)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수천(여·63)
17) 金榮敦, 『濟州島 民謠 研究(上)』, 一潮閣, 1965, 1118 자료.

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으며, 날씨가 나쁘면 꿀을 벨 수 없어 비가 오기 전에 빨리 꿀을 베야 한다는 심정을 직설적으로 노래하고 있고, 날씨에 대한 걱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생활 주기에서 꿀을 벨 때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부지런한 생활 태도를 볼 수 있다. 하늬바람은 농부들에게 소중한 바람이다. 꿀을 베고나서 빨리 말려야 되는데 바람이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⑦ 망건노래

함덕짚새기	믿어랜맹긴아
정의나좁쌀은	믿어랜맹긴아
눈미나낭장시	믿어랜맹긴아
잇개나뒹개나	조리방뜰은
건지만 ^ㅎ 여도	들방괘건지여
치매만 ^ㅎ 여도	연반물치매여
신만신어도	은돈반짜리여
보선만신어도	코재비보선 ¹⁸⁾

〈망건 노래〉는 망건을 걸으면서 부르는 노래다. 과거 조천에서는 여러 집에 망건청을 두어 망건을 걸을 정도로 망건 작업이 성행하였다. 아래의 〈표1〉¹⁹⁾에 서와 같이 해방 이전에도 관모 공예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1925년도 제주도내 관망공예 통계

종 류	종사호수	1년간 생산량수	가 격
양 태	13,700	125,000	405,000円
탕 건	128	9,300	15,810
망 건	712	59,000	59,000

18)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이이완(여·77)

19) 金榮敦, “제주의 관모공예”, 『민속학 논총2』, (석주선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2, p. 96.

제주도내 갯일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치러졌다. 동쪽으로는 조천읍 일대로부터 지금의 제주시 시가지를 끼고, 서쪽으로는 애월읍 동반부에 뻗었을 뿐이다. 갯장수들은 관덕정과 삼양, 조천의 오일장날마다 갯양태, 갯모자, 탕전, 망전을 잔뜩 사들이고 전국 곳곳으로, 심지어는 멀리 북간도에까지 부치곤 했다. 갯모자 작업의 중심은 도두, 이호, 양태 작업의 중심은 삼양, 망전 작업의 중심은 조천, 탕전 작업의 중심은 화복이었다.²⁰⁾

과거 갯일이 썩 극성스럽게 진행됐는데도 현재 이 노래의 전승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불려지고 있다. 1989년 MBC의 '한국민요대전' 조사 때에 구좌읍 덕천리에서 <이야홍>의 가락으로 <망전 노래>가 발견되었고, 애월읍 동귀리의 <양태노래>, 그리고 조천의 <망전 노래>들이 현재 드물게 불릴 뿐이다. 1960년대에 조사된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 상》에서도 <망전노래>는 조천, 함덕(총 6편), <양태 노래>는 제주시 삼양동, 제주시 건입동(총 6편)이 수록됐을 뿐이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작업이 진행되어 왔고 많은 집에서 갯일이 행해져 왔는데 갯노래의 전승이 드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첫째, 갯일이 수요에 의해 필요시에 행해져 오던 일이라 공급이 원만치 않을 때는 드물게 일이 행해졌을 수도 있고, 다른 노동요처럼 오랜 옛날부터 지속되던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갑오경장 때 단발령의 고비로 사양길로 접어든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둘째, 갯일에 대한 노래는 가락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조천에서 망전일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 고정적 <망전 노래>나 창민요나 아무 것이든 부른다. 심지어는 다른 노동요까지도 망전일을 할 때 부르기도 했다는 것이다.

제주의 여자들은 생활력이 강해 거의 일에 뛰어들어 생활하며 저마다 지역 특산물을 생산, 조천장에 내다 팔고 필요한 것을 사고 오기도 하지만, 아무 것이든 갖출 수는 없는 일어서 조리방 딸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만

20) 金榮敦, "제주의 관모공예", 『민속학 논총2』, (석주선 박사 고회기념논문집), 1982, p. 97.

있을 뿐이다. 또한 여성들의 심리 표현을 조리방 딸의 의복으로 나타내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노래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이 노래도 망건을 걸으면서 불리는 노래다. 잇개는 신흥, 뒷개는 북촌리로서 잇개, 뒷개에 잘 사는 딸은 좋은 치마에 좋은 신에 좋은 보선을 신는다는 이야기다.

⑧ 불미노래 (똑딱불미)

불미나불영	얻어나먹저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우리나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불미나불영	얻어나먹게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불쌍흔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²¹⁾

〈불미노래〉는 생활에 필요한 철기를 만들기 위해 풀무질하며 부르는 소리로 작업 형태에 따라 ‘똑딱불미’, ‘청탁불미’, ‘발판불미’, ‘디덤불미’로 구분된다. 위의 〈똑딱불미노래〉는 한 사람이 혼자 작업하던 것으로서 가장 오래된 형태인 똑딱불미질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제주도내 여러 마을에서 확인된다.

〈불미노래〉는 제주도에선 안덕면 덕수리에서 주로 불려진다. 제주도의 노동요가 일의 힘듦으로 인해 생활에 대한 원망이나 탄식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불미노래에서도 불미나 불어 먹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불미질은 생계의 수단이 되고 있지만 일을 그만두고 싶은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자신을 낳은 어머님도 은혜의 대상,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고생이 있게 만든 원망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면서도 현실을 수용

21)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이이완(여·77)

한다.

독창의 형식으로 창자가 사실과 후렴을 모두 혼자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조천리에서 확인된 노동요를 살펴 보았다. 이 중 조천리에서만 드물게 전해지는 노래는 <망건 노래>로서 과거 이 지역이 해상교통의 중심지로 물물교역이 성했고 조천읍 일대가 평원 지대로 방목이 성행해서 말총 생산이 수월했기 때문에 이 노래가 많이 불려져 왔으며 <망건 노래>로는 창민요, 노동요로는 <김매는 노래> 중 <아웨기>가 서로 교류, 가창되고 있다. 조천의 노동요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의 노동요와 형태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망건 노래>가 이 지방에서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불려지고 있으며 망건 작업시에 여러 요종의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다. <망건 노래>는 망건작업시에 창민요와 서로 교류 가창되고 있기도 하다. <망건 노래>를 제외하고는 조천의 노동요가 제주도의 보편적 특질이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노동요의 전승 집단이 특수집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일과 함께 보편적 삶을 누려 온 일반서민의 노래라는 것과 관련된다.

2. 창민요의 전승양상

가. 분포와 지역성

창민요 가운데 일부는 제주도의 소수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조천, 성읍, 제주시, 대정에서 창민요가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러한 곳들은 옛 도읍지로서 과거 문화, 문물의 유입지라는 점에서 창민요가 전승될 수 있었던 바탕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조천리는 이들 세 지역이 관청 소재지였다는 것과는 달리 조천관으로서 교통의 중심지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제주와 육지를 잇는 관문으로서 문화 유입 및 교류가 다른 지역보다도 유난히 많았다는 점에서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이러한 특수한 지리적 여건은 민요의 분포에서도 다양한 요종이 불려지고 특히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 특이성이 민요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것

은 민요의 사설 속에서 조천인의 의식을 노래 속에 투영시켜 조천만이 갖는 특별한 민요를 양산하고 있다. 여기서는 조천의 창민요를 사설 중심으로 살펴 나가는데,

다음 창민요를 제주도의 지역 중 창민요가 전승되는 지역과 대비시키고 한국본토 민요와의 비교가 가능한 것은 대비시키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확인된 창민요를 대상으로 분포를 놓고 볼 때 조천과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지역 중 가장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성읍과 대비해보면 <표2>와 같다.

<표 2> 창민요 분포표

요 종	지 역	성 읍	조 천
오돌또기		○	○
산천초목		○	○
동풍가		○	○
아리리리리동동			○
엽전소리			○
아리랑(옛아리랑)			○
관덕정앞		○	○
영변가		○	○
계화타령		○	○
용천검		○	
질군악		○	
중타령		○	
사랑가		○	
오광산타령		○	
봉지가		○	

위와 같이 조천과 성읍은 노래 상당수가 두 지역에서 불리면서도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만이 갖는 특별한 노래가 불려지고 있다. 또한 조천과 성읍의 민요를 창민요를 통해 내용상으로 비교해 볼 때 성읍은 창민요로서 정제되고 절제된 노래인 반면, 조천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노래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

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성읍은 과거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 500년 역사를 지녔기에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창민요의 형태도 많이 정제된 반면, 조천은 육지와와 문물 교류는 잦았지만 조천관으로 포촌을 이루었기에 그들의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의식이 노래 속에 투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창민요의 전승 요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창민요는 조천과 성읍 지역에서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곳 모두 창민요가 전승될 수 있는 사회적, 역사적 요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성읍리는 과거 정의현의 현청 소재지로서의 문화권이 형성되어 창민요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고, 조천리는 육지와와 문물의 교류지였다는 지리적 여건상 다양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다같이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성읍리가 산촌이면서 고을이듯 조천리가 일주도로 남쪽은 산간마을의 특성을 이루고 양촌이면서 또한 해안가에 위치한 포촌이면서 제주의 관문이요 '조천관(朝天館)'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이다. 다만 두 마을은 해촌과 산촌이라는 점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드러낸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기에 민요의 전승 역시 이 두 지역은 모든 요종을 골고루 지닐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전승되는 조천의 창민요는 관변층에서 불려지던 노래가 이후 민간으로 흘러들어 자리매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 서민들의 관변문화에 대한 동경이 점차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관변의식을 낳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창민요의 전승은 관변문화에 대한 동경으로 말미암은 창민요의 수용이 있었기에 그들로 하여금 현재까지 창민요 전승의 맥을 이어오게 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천과 성읍 이 두 지역은 민요의 분포가 보편성을 토대로 한 특이성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마을들이다.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노동요가 분포돼 있는가 하면 타지역에서 불려지지 않는 특이한 창민요가 발견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조천과 성읍에서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창민요를 전승시킬 수 있었던 매체, 곧 창자가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즉 관변층의 전승집단인 기녀들이 창민요의 전승을 담당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기녀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불려졌던 창민요는 점차 민간에 흡수되어 일반 민간의 노래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창민요의 수용은 그곳 문화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니 이 지역이 제주도 창민요의 총본산이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나타난 사설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지역과의 사설을 대비 삼아 전승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조천과 성읍 지역에서 사설이 공통한 오돌또기, 동풍가, 산천초목을 중심으로 창민요를 다루고 그외의 창민요는 비교가 가능한 것은 대비시키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다. 사 설

① 아리랑(옛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고개로 날만נג겨다오
냉겨줄 마음은 고새 간절나도
어머니 등쌀에 못만נג겨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고개로 날만נג겨다오
아실아실 춤거든 내품에만자고
베개가 노프건 나플만베어라²²⁾

제주에서 민요 전승자로서 <아리랑>을 부르는 제보자는 많다. 그러나 조천의 고운산씨에 의해 <아리랑>이 채록됐는데, 그 사설이나 가락이 유다르다. <아리랑>에서 주체는 피동적, 소극적 행위자로서 관망적 태도를 보인다. 1연

22)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4)

에서 화자는 나이지만, 나를 고개로 넘겨 주는 사람은 어머니 등쌀에 못넘겨 주는 제 3자이다. 각편 전체상으로는 1, 2연의 1, 2행이 후렴이 되어 있지만, 1연에서는 후렴과 3, 4행이 의미상으로 연결되고 있고, 2연에서는 후렴이 3, 4행과 의미상 단절되고 있다. 조천리에서는 망건 작업시에 창민요도 부르곤 했었는데 옛아리랑도 망건을 짜면서 불렀던 노래이다.

조천에서는 원래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여러 종류의 노래가 망건 작업시에 불려져 왔기 때문에 옛아리랑도 지역적 여건상 조천에서 드물게 불려지는 것이라 본다.

② 엽전소리(술캉술캉)

술캉은 술캉은 준돈푼 소리에
 아니나 녹을눔 개잡눔엇구나
 네가나 잘나서 일색이더냐
 내몸이 잘나서 일색이여
 술캉은 술캉은 준돈푼 소리에
 아니나 놀아랜 개잡년이더냐
 요리도 놀다가 나죽어불민
 아무나 소용도 없어나진다²³⁾

〈엽전소리〉는 망건을 짜면서 부르거나 놀면서 부르는 노래로서, 아직은 조천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원래는 놀이판에서 불려졌던 노래다. 엽전을 맞잡고 소리가 날 때 술캉술캉 소리가 난다고 표현함으로써 〈술캉술캉〉 또는 〈엽전소리〉라 부르고 있다. 여인이 엽전을 잡고 춤추는 동작을 묘사하고 있으며, 놀이판에는 불량스런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여인이 엽전을 잡고 술캉술캉 소리를 내며 춤추는 자태에 반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네가나 잘나서 일색이더냐”라는 말은 남자가 잘난게 아니라 내몸이 잘나서, 또는 내 눈이 어두워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는 뜻도 들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젊어서

23)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4)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 후회하게 되듯이 순간 시절에 향유하다가도 만년에 생활이 허망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해주는 노래이다.

〈엽전소리〉는 〈청춘가〉에서도 유사한 사설이 보인다.

네가잘나 일색이드나
내눈이어두어서 환장이로다.²⁴⁾

네가나잘나서 일색이더나
내몸이잘나서 일색이여 (조천)

제보자에 따르면 ‘내몸이 잘나서 일색이여’의 부분은 내 눈이 어두워 환장이라는 뜻으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점은 사설에서 등가항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지역간 사설의 전이 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엽전소리〉는 과거 기녀에 의해 불려지던 노래가 민간에 유입되어 현재 조천에서 드물게 전승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조천에서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내용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민요보다는 훨씬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인다.

③ 동풍가

A 실시리 동풍에 굿인비는 하나둘씩오는데
지화야 연풍에다 님소식만 눕시다
B 실시리 동풍에 굿인비 주리줄줄오는데
지화야 연풍에 입소절만 낫구나
아서라 말아라 내가그리 말어라²⁵⁾

〈동풍가〉는 한국본토의 여러 곳에서도 비슷한 사설이 삼입되어 전해지고 있다. 제주에서는 조천을 비롯한 제주시, 성읍, 대정 일부 지역에서 〈동풍가〉 명칭으로 비슷한 사설로 전승되고 있고 육지에서는 〈슬슬동풍가〉, 〈실실동풍에〉,

24) 任東權, 『韓國民謠集 V』, 集文堂, p. 215

25)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A: 고운산(여·84) B: 이이완(여·77)

〈난봉가〉, 〈자진난봉가〉 등으로 첫머리 사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풍가〉의 첫머리 사설을 타지역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1.1 실시리동풍에긋인비는하나둘씩오는데 (조천)
- 1.2 슬슬동풍긋인비는오구요 (강원도 면천면)²⁶⁾
- 1.3 시일실동남풍긋인비요리조리오고요 (강원도 둔내면)²⁷⁾
- 1.4 슬슬동풍에긋은비는오구요 (서울지방)²⁸⁾
- 1.5 슬슬동풍에긋은비위데줄줄오는데 (강원도 묵호읍)²⁹⁾
- 1.6 실실동풍긋은비오고난뒤 (부여지방)³⁰⁾

1.1~1.6의 예는 전승사설에 대한 구심적인 구연의 결과다. 위의 문면의 구성 요소들은 매번 새롭게 선택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사설에 따라 문면의 구성 요소들이 굳어져 유형적인 핵심과 함께 전승되는 일이 보통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연고단어’ 또는 ‘연고적 수행요소’³¹⁾라고 하는데 동풍가의 위의 사설에 있어서는 지역간 연고적 수행요소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연고적 수행요소들은 사설의 앞부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1.5의 경우는 농요가 끝나고 이어지는 노래에서 〈자진난봉가〉를 부르는 가운데 사설의 후반부에 등장하고 있다. 이는 본래의 〈동풍가〉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다른 노래 속에 사설이 삽입되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풍가〉의 내용은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조천의 〈동풍가〉는 “실시리 동풍에 긋은 비가 내려도 님소식 기다리며 놀자”는 향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교창 형식으로 불린 노래인데 마지막 ‘아서라...’는 의미있는 후렴의 형식을 이루고 있으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님과 함께라면 자연의 어떠한 방해도 장애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4-1』, 1980, p. 449

2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2-7』, 고려원, 1984, p. 265

28)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 514

29)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2-1』, 고려원, 1980, p. 923

30)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 592

31) 姜騰鶴, 『旌善아라리의 研究』, 集文堂, 1988, p. 43.

여기서는 남녀가 바람을 피는 것을 자연의 바람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게 띄어쓰기다. '동풍'과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바람인 '연풍'을 사용, 젊을 때의 바람이 무섭기에 이런 무서운 바람을 뜻하는 말로 연풍이 사용되고 있다. 곧 '동풍'과 '연풍'은 남녀의 바람을 뜻하는 말로 사랑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후렴은 서로 바람을 피우다가 괘시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대목으로 노래에서 바람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동풍가〉는 제주시, 조천, 성읍, 대정 등지에 분포되고 있는 창민요로, 서도소리인 〈난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봉가

슬슬동풍에 굶은비는오구요
시화나연풍에 입섞여노잔다
아에헤야 어루나동동
내사랑이로구나

장산곶마루에 북소리둥둥나더니
금일에상봉에 임만나보리라
아에헤야 어루나동동
내사랑이로구나

난봉이났네 난봉이났네
남의집외아들 실난봉났구나
에헤에헤야 어루나동동
내사랑이로구나³²⁾

동풍가

시일실동풍에 굶인비 주리줄줄오는데
지와장아 연풍에 입소식만 나는다
에헤에 에행이~이헤요

32)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 514.

사랑아 내동동 내사랑만 가노라
장상봉마루에 북소리 콰광 콰광하는데
지와장아 연풍에 임소식만 나는다
에헤에 에헤이~이헤요~
사랑아 내동동 내사랑만 가노라³³⁾

동풍가

실실이 동풍에 꺾은비는 하나둘씩 오는데
지화자 연풍에 임소식만 나노라
어형어허야 어럴마 두리동동 사랑가로만 돌아보자
어형어허야 어럴마 두리동동 너허고 나허고만 돌아보자

난봉났구나 또로또 난봉났구나
동넛집 총각이나 난봉만났구나
어형어허야 사랑말아라 너허고나허고 사랑이라³⁴⁾

위의 민요를 비교해 볼 때 노래간에 서로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성읍의 <동풍가>는 <난봉가>와 1연, 2연 모두 사설이 비슷하고 구조적 속성을 같이하고 있으며 조천의 <동풍가>는 1연, 3연이 사설에 있어 비슷하며 구조적 속성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노래이지만 사설의 수수관계에 있으며 같은 계통의 노래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형태면에서 후렴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은 한 계통으로서의 구조적 속성을 타나내고 있다.

제주도내에서 <동풍가>는 현재 조천, 성읍, 제주시, 대정에서 주로 불려지고 있다. 이들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사설 속에 '동풍'이라는 말이 나와 <동풍가>로 불려진다. 한본토의 민요도 <난봉가>로 불려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풍가>로 명칭에 있어 거의 공통 분모를 이루고 있다. <동풍가>와 <난봉가>의 상관성은 노래 속에 같은 사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이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동풍가>로 불려지는 노래에 있어서는 제주의 <동풍가>가 사설이 가장

33)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1993, p. 622.

34) 1985. 한승훈 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0)

풍부하게 전승되고 있고 후렴도 더욱 발달되어 있다. <동풍가>는 제주나 한국 본토 모두 앞 사설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후의 사설은 창자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점이 제주나 한국본토의 <동풍가>가 한 노래에서 나와 전승 과정을 거치며 변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한국본토의 동풍가는 <슬슬 동풍가>, <실실 동풍에>가 사설이 짧고, 후렴이 없거나 불확실하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 <동풍가>와 앞사설이 유사한 <난봉가>는 사설이 정제되고 후렴도 규칙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풍가>의 사설은 <사랑가>에서도 나타난다.

사랑가

실실동풍

긱은비 오고난뒤

세화야 연풍아

네잘있거라

응응응에에야

러름아 둥둥

너의 사랑아³⁵⁾



이처럼 조천 <동풍가>에서 나타난 사설은 다른 노래에서도 나타나는데 <동풍가>는 하나의 노래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되고, 사설이 다른 노래 속에 삽입되어 전승되고 있다. <동풍가>는 제주도 가운데서도 한국본토와의 교류가 빈번했던 제주시, 조천, 성읍, 대정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불려지지 않고 있으며 한국본토의 여러 곳에서 같은 사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노래는 제주 고유의 노래라기보다는 한국본토의 노래가 제주로 유입된 노래로 봄이 타당하다.

조천과 성읍의 <동풍가>는 사설과 가락이 비슷하여 육지에서 유입된 노래가 제주에 정착하여 제주화해버린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 592.

④ 오돌또기

〈오돌또기〉 ㉠

오돌또기 저기춘향이 나온다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칠폭팔폭은 9뚝폭 치매
 꽂고더끄난 복판이 남앗소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갈까나
돈닷돈받고요 삼밭되 들엇더니
물맹지단속옷 다찢어졌구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³⁶⁾

〈오돌또기〉 ㉡

오돌또기 저기춘향이 나온다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거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거나
한리산 중허리엔 시로미 든송만송
서귀포 해너덜은 바다에 든송만송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거나³⁷⁾

〈오돌또기〉 ㉢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밝고 내가 머리로 갈까나
 둥그대당실 둥그대당실 이야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까나

36)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4)

37)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p.208.

성산일출 사봉낙조

제주시 항구는 산포조어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까나³⁸⁾

〈오돌또기〉 ㊸

오돌또기 저기춘향 보아라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거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거나

한라산 중허리엔 높이든 구름도

바람만 불면은 간곳이나 없구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거나³⁹⁾

〈강릉 오돌또기〉 ㊸

강릉이라 남대천물에

빨래방치 두동실땀네

이슬아침 만난동무

서경천에 이별일세⁴⁰⁾

〈경기 오돌독〉 ㊸

용안 여지 에루화 당대추는

정든 님 공경에 에루화 다 들어가는구나

시월 춘풍에 에루화 돛 높이 달고

오동 추풍에 에루화 임 따라 가세⁴¹⁾

38) 앞의 책, p. 598.

39) 『韓國口碑文學大系 9-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 p. 1038.

40)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 604.

41)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p. 532.

〈오독떼기〉 ㉸

오독떼기 추야월에
달도밝고 명랑하다

양근지평 썩나가니
갯기바람 완연하다

머리 좋고 실한처자
줄뽕남게 걸았았네⁴²⁾

〈오독떼기〉 ㉹

님찾아가세 님찾아가세
뽕대밑으로 임찾어가세

임찾어가세
오늘해도 건주갓네
골골골마다 정자든다

술맛이 좋구 달뜬집에
아침저녁 놀러가세 놀러가세⁴³⁾

〈오돌또기〉는 제주와 경기,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불려지고 있다. 노래의 명칭이나 기능, 사설면에서 육지의 민요와는 차이가 있지만 제주에선 전 지역이 사설이나, 기능, 음곡면에서 비슷하다. 제주의 대부분의 지역이 제재면에서 제주의 경승을 노래하고 이따금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기는 하나 확인된 노래로 볼 때 조천에서는 내용상 거의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는 조천이 처한 특수한 지역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

조천의 〈오돌또기〉는 3연으로 불려졌는데, 각 연마다 후렴이 붙어 있다. 1연에서는 춘향을 맞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2연에서는 치마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 3연에서는 삼밭에 따라갔던 대가로 돈 닷돈을 받았지만 물멍지 단속 옷이 다 찢어졌다고 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돌또기〉의 주제로는

42) 『韓國口碑文學大系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 587.

43) 『韓國口碑文學大系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 921.

제주도의 자연 풍광을 노래한 것이 많으며 사랑, 이별의 내용도 더러 보인다. 위의 노래는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위의 사설을 가지고 <오돌또기>를 비교하기로 한다.

㉠, ㉡, ㉢, ㉣은 모두 후렴, 형식면에선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연고단어로 달라진 어휘가 있기는 하나 노래의 형식이나, 후렴에 차이점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창자에 따라 연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의 구조적 형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다.

사설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 ㉢, ㉣이 제주도의 자연 풍광을 노래한 반면 ㉠은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돌또기>는 지역에 따라 명칭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경기에서 <오돌독>, 강원도에서는 <오독떼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다만 《한국민요집》에서는 강릉과 가집의 민요를 <오돌또기>1, 2, 3으로 수록해 놓고 있다.⁴⁴⁾ 제주와 경기, 강원도의 민요 사설을 비교해 볼 때 형태나 사설면에서 유사한 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제주의 <오돌또기>의 후렴은 거의 고정화되다시피 하였지만 경기의 <오돌독>과 강릉의 <오독떼기>는 단 한 편만 후렴이 나타나고 있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현재 조사된 자료만을 비교해 볼 때 사설의 유사성은 찾아볼 수 없다. 조천과 성읍 지역에서는 <오돌또기>가 후렴이 같고 1연에서 사설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으며 2연 이후에서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태면에선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선 조천이 연정을 노래한 반면 성읍리에서는 영주십경 곧 제주의 경승을 노래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오돌또기>에서는 내용을 제외하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강원도의 <오독떼기>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제주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제주의 <오돌또기>는 1연에서는 거의 고정화된 형식을 가지고 창자에 따라 사설의 가감으로 약간의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고, 강원도의 <오독떼기>는 후렴의 유무, 창자에 의한 변이가 수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고정된 형식

44)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集文堂, 1975. pp. 604~606.

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마다의 변이도 있지만 <오독떼기>가 거의 사설에 있어 처음의 기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데서도 그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오독떼기>는 강원도 강릉 일대에 전승되고 있는 <김매기 소리>의 하나다.

또한 <오독떼기>에 대한 이야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세조께서 동순시(東巡時) 강릉 농민으로 하여금 <오독떼기> 선가자(善歌者)를 뽑아 노래하게 하고 크게 찬탄하고 시상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보아⁴⁵⁾ <오독떼기>라는 명칭은 오래 전부터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독떼기 추야월에
달도밝고 명랑하다⁴⁶⁾

오돌또기 저기춘향 나간다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조천)

위에서 보듯 한 편의 1연에서 사설이 다소 비슷한 감이 있지만 나머지 각 편을 대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오돌또기>의 첫머리 사설의 유사성은 <홍부가>나 <가루지기 타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재효본 <홍부가> 및 <가루지기 타령>에 보면 제주의 <오돌또기> 사설과 비슷한 삼입가요가 전해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홍부가>에서

또 한 년 나오면서

오돌또기 춘향춘향 월의달은 밧고 명랑한디 여거다 저거다 연져바리고 마리 못된 경이로다 만첩천산 썩썩 들어가서 후여진 버드나무 손으로 주를을 홀터다가 물의다 동덩동덩 실실 여거다 저거다 연져발이고 마리 못된 경이로다.

45) 『韓國口碑文學大系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315.

46) 『韓國口碑文學大系 2-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p.587.

〈가루지기타령〉에서

한 연은 나셔며

오돌또기 춘양춘양 위월의 달은 받고 명낭한디 여귀다저귀다 연져버리고
마리못든 경이로다 萬疊靑山을 속속 들어가서 늘어진 버들나무 드립떠 덩씩
휘어잡고 손으로 줄을을 홀터다가 물의다 둥둥 띄어두고 둥덩덩실 여귀다
저귀다 연져버리고 마리못된 경이로다.

위의 〈홍부가〉와 〈가루지기 타령〉의 사설은 제주의 〈오돌또기〉 사설과 첫머리가 거의 흡사하다. 또한 후렴도 위의 사설 안에 나와 있는 것과 형태가 같은 것으로 보아 제주의 〈오돌또기〉는 강원도의 〈오독떼기〉보다는 강원도의 〈홍부가〉와 〈가루지기 타령〉과의 대비를 통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의 〈오돌또기〉는 경기지방이나 강원도의 〈오독떼기〉와는 사설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지니고 〈홍부가〉나 〈가루지기 타령〉에 첫머리 사설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홍부가〉와 〈가루지기타령〉과의 상관성 속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⑤ 산천초목

- A 산천초목 소속입나난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 아이고아이고 받음네다
- B 산천초목 소속입난디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산의올라서 옥을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로구나
- A. 물을타고 꽃밭디드니 발자채마다 상네가난다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도 받음네다⁴⁷⁾

〈산천초목〉은 현재 주로 제주시, 조천, 성읍 지역에서 전승되는 민요다. 한국본토의 산타령계 민요의 특징을 짙게 띠고 있는 창민요로 보기도 하는데⁴⁸⁾,

47)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A: 이이완(여·77) B: 고운산(여·84)

48) 金榮敦, “제주민요의 요별 고찰”, 『濟州의 民謠』, p.120.

〈산타령〉은 서울 경기 지역과 서도 지방에서 불리는 잡가 중 서서 소리하는 선소리의 대표적 곡목으로 〈놀랑타령〉, 〈앞산타령〉, 〈뒷산타령〉, 〈자진산타령〉으로 되어 있다.⁴⁹⁾ 바로 이 〈놀랑〉 부분에서 불가어로 진행되다가 한참 뒤에 〈산천초목〉이 나온다.⁵⁰⁾ 민요의 첫머리 사설은 경기 및 서도 입창의 〈놀랑〉, 남도 〈화초사거리〉의 첫머리 사설과 같고, 신재효본 〈가루지기타령〉이나 〈흥부가〉에 나오는 거사 사당패가 부르는 잡가의 사설과 비슷하다.

- 1.1 산천초목이라 성림한디 귀경가기 질겁도다 (흥부가)
- 1.2 산천초목이 성림한디 귀경가기 질겁도다 (가루지기타령)
- 1.3 산천초목 소속입나난 구경가기가 반갑도다(조천)
- 1.4 산천초목 속입입난디 구경가기 열화 반갑도다(성읍)
- 1.5 산천초목 속입이난디 구경가기가 반가워라(제주시)
- 1.6 초목이다 성림한데 나혜혜 에헤이히구후후경
가혜혜 기히이히구후후경 가혜혜 기히이해도호
제에기즐겁어 험도호오호오 (놀랑)

이처럼 조천의 〈산천초목〉은 이 부분에서 〈흥부가〉나, 〈가루지기타령〉의 사설과 유사하고 〈놀랑〉, 제주시, 성읍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천초목〉도 제주의 일부 창민요에서 앞사설이 파괴되지 않고 거의 고정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유형적 핵심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 “산천초목 소속입나난 구경가기가 반갑도다”에서 ‘소속입나난’은 전승 과정에서 변이된 것으로 보인다.

산천초목 성림이난디
에헤이요 귀경가기가 열화 반가와진다⁵¹⁾

실제로 서귀동의 박앵무씨는 〈흥부가〉나, 〈가루지기 타령〉의 사설과 비슷

4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260.

50) 위 책, p. 120.

51) 金榮敦, 『濟州의 民謠』, p. 121.

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는 전승과정에서 일부는 변이되고 일부는 원형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는 창자에 의해 변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한본토에서 유입된 노래가 전승 과정을 거치며 앞서설은 옛 형태를 잃지 않고 다음 행으로 이어지는 사설 부분에서 지역마다 변이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조천의 <산천초목>은 향락을 주제로 후렴이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산천초목> 계통의 노래들은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첫머리 사설이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계통이 하나라는 것을 짐작케 해주며 전승 경로를 밝힐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산천초목>은 <홍부가> 및 <가루지기 타령>에 비슷한 사설이 드러난다.

<홍부가>에서

[사당거사 조와라고 거사덜은 소고치고 사당의 제차대로 연계사당 몬져나서 발림을 곱게 하고]

산천초목이라 성림한디 귀경가기 질겁도다 이야어 장송은 낙낙 기력이 필 필 낙낙장송이 다떨러진다 성황당 어리궁 벽국새야 이산의로 가며 어리궁벽궁 저산으로 가며 어리궁벽궁

<가루지기타령>에서

[판노름 초린듯기 가난길 건너편의 一字로 느러안져 거소덜은 소고치며 소당은 제초되로 연계소당 몬져나서 발림을 곱게 하고]

산천초목이 성림한디 귀경가기 질겁도다 어야 이 장송은 락락 질역이 필 필 낙낙장송이 다떨어졌다 이야어 성황당 궁벽궁쇠야 이리가며 궁벽궁 저산으로 가며 궁벽궁 아물회도 너로구나

이처럼 <산천초목>의 첫 사설이 <홍부가>와 <가루지기 타령>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 <홍부가>나 <가루지기 타령> 또는 <춘향가> 등 판소리 계통의 소리들은 육지의 여러 잡가에도 영향을 끼쳐 노래 속에 이들의 사설이 유입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놀량>이나 제주의 <산천초목>도 창민요의 전승집단의 노래의 가락에 실려 전승되면서 이후 지역 고유의 노래로 변이, 정착되

면서 첫 사설만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산타령의 시초는 조선 말기 오강(五江)으로 불린 한강, 용산, 삼개, 지호, 서호 등의 소리꾼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재효본 <박타령>과 <변강쇠타령>에 사당패들이 나와서 <놀량>을 비롯한 <산타령>을 부르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종 연간의 오강의 소리꾼들을 <산타령>의 시초로 잡기는 어려울 것 같다.⁵²⁾ 어쨌든 <산타령>은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제주의 조천, 제주시, 성읍 등지에서는 기녀들에 의해 유입되어 불려지고 전승되던 것이 민간에 흘러 들어 민요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창민요의 전승자가 기녀였다는 사실은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었고, 1963년 당시 서귀포시에서 산천초목을 불렀던 박앵무(당시, 69세)씨는 제주도 정의 고을의 이름난 기녀였다 한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무렵 전국에 부역을 명하여 노역을 시켰는데 일의 괴로움을 덜고 흥을 돋우기 위하여 각 지방별로 향가나 민요 등을 불렀었다고 한다. 본도 출신 중에도 나아가 노래를 불렀는데, 산천초목을 청아한 목청으로 불러 현장 역군은 물론 장안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고 한다.⁵³⁾ 이처럼 <산천초목>은 전부터 민간에 유입되어 제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널리 불려지게 된 걸로 보인다.

⑥ 이야흥

이야흥 아하흥 그러고말고서
나맹긴아 무꺼지라 혼돌육장 시배긴맹긴
이야흥 그러고말고서
이야흥 아하흥 다이를말이나
삼백도리 진소장맹긴가
이야흥 그러고말고서
이야흥 아하흥 다이를말이나⁵⁴⁾

52) 『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 12』, p.260.

53) 洪貞均, 『濟州島民謠 解説』, 省文社, 1963, p.38.

54)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4)

제주에 널리 분포된 <이야홍>은 <이야홍 타령>이라고도 한다. <이야홍 타령>이라는 명칭은 사설에 나오는 여음인 ‘이야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야응>, <이야홍> 등이 쓰이는데, <이야홍>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창민요의 분포가 그렇듯 <이야홍>도 제주시, 조천, 대정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고 동김녕, 종달 등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노래는 여흥적인 상황에서 주로 가창되었겠지만 조천에서는 망건걸는 노동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위의 경우 망건 작업을 하면서 <이야홍 타령>의 가락에 <망건 노래>의 사설을 삽입해 불려진 경우이다. <이야홍 타령>은 가락이 매우 흥겨운 게 특징이다. 세밀한 동작이 요구되고 지루한 일을 이겨내는 데 <이야홍 타령>의 가락을 빌린 <망건 노래>는 흥겨운 가락으로 일의 고됨을 덜어주고 작업 능률을 올릴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한 자족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타지역의 창민요와 사설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이야홍야아홍그렇고말고요

이야홍야아홍다글을말이라

한라산상상봉높고도높은봉

이야홍백록담이라⁵⁵⁾

2. 정떨어젓구나정떨어젓구나

이야홍야아홍그렇고말고요

이야홍야아홍다글을말인가

한라산상상봉높고도높은봉

이야홍백록담이라⁵⁶⁾

3. 청춘에 할일이내그리없더나

이야홍야아홍다글을말인가

우리가요렇게내살다가

이야홍야아홍다글을말인가⁵⁷⁾

55)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 516.

56) 金榮敦, 『濟州의 民謠』, p. 211.

57) 金榮敦, 『濟州의 民謠』, p. 413.

4. 이야흥소리에정떨어졌구나
 이야흥그렇고말고요
 이야흥야흥그렇고말고요
 야흥이야흥다굴을말이나
 한라산상상봉높고도높은봉
 이야흥백록담이라⁵⁸⁾

위의 민요의 사설을 볼 때 조천, 대정을 제외하곤 나머지 사설이 거의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곤 내용이 모두 제주의 경승을 노래하고 있으며, 대정이 일을 하고 난 결실을 결국 인왕산 호랑이한테 모두 빼앗긴 것을 노래한 반면 조천은 망건작업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신세한탄을 노래하고 있는 점에서 조천과 대정의 노래는 다른 지역과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후렴은 전 지역 모두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제주시와 동김녕리에서 앞사설이 ‘정떨어졌구나’와, ‘이야흥소리에정떨어졌구나’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노래의 사설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것은 제보자의 창작 의도에 의해 어느 새 새로운 연고적 수행요소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다. 이처럼 창작자의 의도적 요소가 유사하게 나타난 경우를 아래에서 볼 수가 있다.

왜생겼나 왜생겼나
 저다지곱게 왜생겼나⁵⁹⁾

위의 노래는 <난봉가>에서도 드물게 보이는 사설로 노래의 앞부분에서 창작자의 의도에 의해 각편이 재창조되고 있다. 위 두 노래는 사설의 형태면에선 차이를 보이지만 사설의 앞부분에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데서는 공통의 의미구조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의미단락에 의해서 분절된 사설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설 고리의 일부가 탈락된다거나, 이 고리에 끼어들어 첨가되고 그 중 앞뒤가 바뀌어 불리거나 또는 다른 내용으로 대치되는 경우이다.⁶⁰⁾

58)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해설집)』, 문화방송, p. 83.

59) 任東權, 『韓國民謠集 Ⅲ』, p. 515.

60) 左忠景, “韓國民謠의 辭說構造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p. 113.

위의 1~4까지의 노래를 주제별로 보면 1, 2, 4가 제주의 경승을 노래하고 3은 신세한탄, 생활상을 노래하고 있다. 1, 2, 4는 사설이나 주제면에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창자들이 연고적 수행요소에 충실하려 했기 때문이다. 즉 전승물이 지니는 고유한 속성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전승의 흐름을 잇고자 하는 창자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정, 조천의 민요는 후렴은 동일한 요소를 반복하지만, 각기 위의 노래들과는 내용상 거리가 먼 서로 다른 개별적 각편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노래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자가 전승 사설을 바탕으로 해서 사설의 재창조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심적 구연에서는 구심적인 구연과는 달리 전승사설의 주제를 그대로 수행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의미구조의 일부를 창자 나름대로 개별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⁶¹⁾ 대정의 노래는 사설이 즉흥적이고 사실에 그친 단조로운 면을 보이고 있는데, 앞의 1, 2, 4와는 다른 형태로서 주도적인 이야흥타령의 사설을 파괴하고 있는 형태다. 지역적으로 도읍지로서의 면모를 갖고 산촌에 위치한 경우 사설의 정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정의〈이야흥〉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조천 민요의 내용을 살펴 보면, 조천에서는 과거 한달에 여섯 번 장이 섰고 그때 결은 망건을 내다 팔았는데, ‘훈들육장시베긴맹긴’은 장에 내다 팔 망건을 시간을 다투면서 만들었음을 뜻한다. 망건은 바로 그들의 땀의 결정체이다. ‘삼백도리 진소장 맹긴’은 서울 사람들이 조천에 망건을 주문해 맞췄는데, 보통 양반들이 쓰는 것보다는 더욱 공이 많이 들고 힘이 들기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맞춰 썼는데 이때는 보통 것보다 100코보다 코를 더 넣어 300코로 만들었기에 이르는 말이다. 망건 작업의 실정을 잘 표현한 노래이다.

61) 姜騰鶴, 앞의 책, p.118.

⑦ 아리리리리동동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입속난티
 원산대천에 뱃놀이가자
 호좁은골목에 단둘이만나서
 내혼자살았나 우리들이살았지⁶²⁾

이 노래는 평양서 온 사람이 망건청에서 불렀던 노래를 고운산이 어릴 때 따라 배웠다고 한다. <아리리리리동동>이 어디서 연유됐는지는 모르지만 제보자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고장의 노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실 속에 지명이 거명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이 노래 또한 원산, 대천이라는 지명과 함께 그곳에 뱃놀이 가자고 나타나고 있다. 타령류에 속하며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뱃노래가자
 내가널만치 생각이이시면
 풀보리야 끊여도 날끌어간다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뱃노래가자
 가면가고 말면은 말았지
 초신을 신고서 시집을 가나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뱃노래가자
 가면가고요 말면은 말았지

62)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조천리 고운산(여·84)

나를 데리고 가시는님은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뱃노래가자⁶³⁾

〈아리리리리동동〉은 일정한 연수를 지니기보다는 구연상황에 따라 연수가 달라짐을 볼 수 있다. 후렴은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⑧ 서우젯 소리

안여박여 숨은여정살여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영감영감 도채비영감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놀아놀아 안여로놀자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베릿베심은놈이 주장이로다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⁶⁴⁾

본래 〈서우젯소리〉는 굿판이나 무의식에서 부르는 놀이무가로 선율이 유연하고 경쾌하며 가락이 구성지므로 민간에 전승되어 민요화한 것이다. 조천에서도 〈서우젯소리〉는 주로 심방들에 의해 불려지며 놀이판에서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놀 때 남녀를 불문하고 불려진다. 〈서우젯소리〉는 한의 가락에 맞추어 신명으로 부르는 민요⁶⁵⁾ 이기에 일과 더불어 타노동요와 달리 가락이 빠어나고 신명나게 불려진다. 〈서우젯소리〉는 창민요 가운데서 제주도의 전지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 요컨대, 〈서우젯소리〉의 가락은 그 곡이 흥겹기 때문에, 다른 노래의 가락에 유입된 경우도 많다.

63) 金榮敦, 『濟州의 民謠』, p. 417.

64) 1989, 민요학회 공동조사, 필자채록, 황석하(여·84)

65) 문부병, “제주도 굿의 연극성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84.

민요의 사설을 보면 그 지역의 민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명이 많이 등장함을 본다. 안여, 밧여, 숨은여, 정살여는 조천 앞바다의 여의 명칭이다. 도채비 영감은 제주도에서 도깨비를 뜻한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베릿배에 비유하고 있는데 베릿배는 그물의 윗쪽 버리다. 이러한 신과 자연과 인간의 조화는 노래 속에 지역 민간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 보겠다.

〈서우젓소리〉의 사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창자의 의도에 따라 각편은 개별화될 수 있으며, 단지 후렴의 형식에 의해 서우젓소리가 다른 요종과 구별될 수 있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 하지만 〈서우젓 소리〉의 후렴은 아래와 같이 다른 요종에서도 종종 드러나곤 한다.

어야 어허어기 방아로구나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
 동이와당 광덕왕 서이와당 광인왕이요
 아하아아양 에에야 어허~이요⁶⁶⁾

〈서우젓소리〉의 내용은 크게 한풀이와 신풀이로 구분되는데, 한풀이는 극적인 삶에서 야기되는 생활고, 늡음과 죽음을 새롭게 인식한데서 오는 신세한탄, 향락, 애정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신풀이는 신의 내력, 신명과 신놀림, 신의 외모와 거동, 배방송의 묘사가 중심 내용⁶⁷⁾을 이루는데 위의 조천리 〈서우젓소리〉의 내용은 신명과 신놀림을 주제로 하고 있다.

조천의 〈서우젓소리〉를 분석해보면 각 행에서 반복적 요소가 특출하게 쓰임을 볼 수 있다. 자주 구사되는 계속적인 반복은 생동감 있고 원기 왕성한 선율을 불러일으키는데⁶⁸⁾, 이러한 각 행의 반복 효과로 인해 〈서우젓소리〉는 더욱 놀이판에서 신명을 갖게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반복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66) 1987, 필자채록, 『민요론집』 창간호, 민요학회, P. 404.

67) 변성규, “제주도 서우젓소리 연구”, 『민요론집』 창간호, 민요학회, P. 180.

68)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p. 68.

안여 밧여 숨은여 정살여
 영감 영감 도채비 영감
 놀아 놀아 안여로 놀자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베릿베 심은놈이 주장이로다

반복은 1행의 '여'의 음절 반복 2행에서 '영감', 3행에서, '놀아'의 발전적 반복이 쓰였고 4, 5행에서의 음절 반복이 쓰임으로써 한 노래에서 반복의 기교가 쓰이지 않는 행이 없을 정도로 표현상에 있어서 뛰어난 기교를 보이고 있다. 조천의 <서우젯소리>가 기교적인 이유는 보수적이며 전통적 성향에서 벗어난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노래 곳곳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⑨ 담방귀 타령 (아웨기)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놀다가자 자다가자 이밤이새도록 놀다가자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울산 담바구야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은을주려 나왔던가 금을주려 나왔던가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은도없고 금도없어 담바구씨를 가져왔구나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뿌렸구나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낮이면은 태양을맞고 밤이나들면 찬이슬맞아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속잎나고 걸잎나서 점점자라 왕성하야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너모나반듯 정도칼로 어슷비슷 썰어다가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영감의쌈지도 한쌈지요 총각의 쌈지도 한쌈지라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
 연무하령이 금떨어진다
 아아아양 어어야 어허어요⁶⁹⁾

담방귀 타령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울산의 담바구야
 담바구씨를 수리수리허쳐
 밤이던 밤천왕을
 받아먹이고 낮이머는
 낮천왕을 받아먹어
 점점이 자라나
 걸이나걸잎은 저쳐놓고
 속이나속잎만 뜯어다가
 발발이 엮어서
 엮서말리고 되셔말려서
 칩칩이 칩을지어
 은장두 늦장두
 사모집이 드는칼로
 어석이바석이 썰어서
 총각의쌈지로 한쌈지
 처녀의쌈지로 한쌈진
 한대를 먹고나니
 목안에 실안개가돈다
 또한대를 먹고나니
 목안에 청룡황룡이틀올린다

69) 1994. 필자채록, 조천리 고두추(남·66)

또한대를 먹고나니
요내맘이 심승생승⁷⁰⁾

〈담방귀 타령〉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담방귀 타령〉에 있어서 창자들은 대부분 구조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창자의 능력에 따라 사설이 해체되거나 변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소수에 이르고 거의 모든 노래가 유형적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담방귀 타령〉은 담배가 대량 생산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때 널리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어디에나 이 노래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에서는 이 노래가 드물게 불린다.

위의 두 노래는 조천과 전라북도 정읍 지방에서 불린 노래인데, 사실이나 의미구조에 있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천의 민요는 육지의 민요가 유입된 것으로서, 노래에서 드러나는 사설의 흐름은 비슷하며, 그것은 창자들이 이 전승사설에 대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담방귀 타령〉은 조천에서 〈서우젓소리〉의 가락으로 불리며 〈서우젓소리〉의 가락으로 불려진 이 노래를 제보자 고두추씨인 경우 〈아웨기〉라 부르고 있었다. 대개 〈아웨기〉의 사설은 〈김매는 노래〉와 다를 바가 없는데, 성산읍 난산리에서는 〈아웨기〉라 불리고 표선면 성읍리 일대는 〈홍애기〉 소리로 불린다.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일부 지역에서는 〈서우젓소리〉의 가락이 〈김매는 노래〉 속에 유입되어 〈김매는 노래〉의 사설과 함께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조천의 〈아웨기〉의 경우는 〈김매는 노래〉의 사설 속에 〈서우젓소리〉의 가락이 유입되어 불리어지는 경우와 놀이판에서 흥을 돋구며 부르는 〈아웨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뉠 수 있다. 〈김매는 노래〉에서의 〈아웨기〉는 그 기능이 갖든 민요로서의 사설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놀이판에서 부르는 노래

70) 任東權, 『韓國民謠集 Ⅱ』, 集文堂, 1961, p. 663.

인 위의 〈아웨기〉는 〈김매는 노래〉의 작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이 둘은 후렴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서우젓소리〉의 가락으로 불린다. 위의 노래는 놀이 기능을 갖는 민요이다.

이상 조천리의 창민요를 살펴 보았는데, 조천리에서는 〈아리랑〉(옛아리랑), 〈동풍가〉, 〈오돌또기〉, 〈산천초목〉, 〈동동소리〉, 〈엽전소리〉, 〈담방귀 타령〉, 〈서우젓소리〉, 외에 〈관덕정앞〉, 〈영변가〉, 〈계화타령〉 등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조천의 창민요는 제주 지역 중 성읍 지방과 함께 풍부하게 전승되는데, 제주시, 대정 지방에서도 일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창민요는 한국본토 문화를 수용할만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창민요는 대개 제주시, 성읍, 대정, 조천이 과거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 조천관(朝天館)으로 도읍지이면서 관이 있었던 지역으로 기녀가 기거했던 점으로 보아, 기녀에 의해 주로 불려졌던 노래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승, 변이 과정을 거쳐 민간에 유입, 노동집단에 의해 맥이 이어지면서 전승되어 현재의 민요로 정착됐으리라 보아진다. 다만, 한국본토 창민요와의 대비는 일부 사설을 대상으로 한갓 시론(試論)으로 접근했을 뿐이다. 음악적 측면의 심층적 고찰 등 학제적(學際的) 연구가 따라야 그 맥락이 천명되리라 본다.

IV. 조천 민요의 특이성

다음 조천 민요의 특이성을 분류와 사설상으로 나누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분류상

민요의 분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가지의 분류 기준에 의한 분류로는 만족할만한 분류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연구 성과가 있지만 선학들의 민요 분류에 있어서도 완벽한 분류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조천리에서 채록된 민요를 보더라도 한 가지 기준으로는 분류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민요가 그 기능을 잃고 노동 현장을 떠나 불려지는 경우에는 더욱 분류가 힘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 민요의 분류에 있어선 김영돈의 《제주의 민요》에서 일반 분류가 이루어졌기에 이를 토대로 분류하고 평노래인 경우 서사민요로 구분한다.

〈제주도 노동요 일람〉

1) 勞動謠

〔1〕 農業謠

1. 따비질노래
2. 밭 가는 노래 (밭 가는 소리)
3. 흙덩이 바수는 노래 (혹병에 두드리는 소리 · 곱베질소리)
4. 밭 밟는 노래 (밭 불리는 소리)
5. 씨레질노래
6. 밀레질노래
7. 보리거름 밟는 노래 (보리걸름 밟는 소리)
8. 밭매는 노래 (점질매는 소리 · 사데 · 사디 · 흥애기 · 아웨기 · 상사소리 · 더럼소리 · 더럼마소리 · 담벌소리 · 담불소리)
9. 타작노래 (마당질소리 · 도깨질소리)
10. 보리 훑는 노래 (보리 훑트는 소리)
11. 벼 훑는 노래 (나루 훑트는 소리)
12. 마소 모는 노래 (마쉬 모는 소리)

〔2〕 製粉謠

1. 맷돌노래 (맷돌놀레 · 맷돌 가는 소리)
2. 방아노래 (방에놀레 · 남방에 짙는 소리)
3. 연자매노래 (물방에[물궤] 짙는 소리)

[3] 漁業謠

1. 해너노래 (해너[질]소리·줍수[질]소리·줍너[질]소리·네 젓는 소리)
2. 배 젓는 소리 (배 젓는 소리·네 젓는 소리)
3. 멧목 젓는 노래 (터우[테우·테베] 젓는 소리)
4. 새 멧목 띄우는 노래 (새 터우[테우·테베] 띄우는 소리)
5. 멸치 후리는 노래 (멸 후리는 소리·멸 후림 소리)
6. 고기 낚는 노래 (케기 나끄는 소리)
7. 갈치 낚는 노래 (갈치 나끄는 소리)

[4] 伐採謠

1. 나무 베는 노래 (낭 끈치는 소리·낭 끈치는 톱질소리·낭 끈치는 도치질소리)
2. 나무 켜는 노래 (낭 싸는 소리·톱질소리)
3. 나무 쪼개는 노래 (낭 깨는 소리·낭 깨는 도치질소리)
4. 나무 깎는 노래 (낭 가끄는 자귀질소리·귀자귀질소리)
5. 나무 내리는 노래 (낭 끄어내리는 소리)
6. 꿀 베는 노래 (출 비는 소리·출 비는 흥애기·흥애기)

[5] 冠網謠

1. 양태노래 (양태 뭏는 소리·양태 졸는 소리)
2. 탕건노래 (탕건 뭏는 소리·탕근 졸는 소리)
3. 망건노래 (맹긴[망근] 뭏는 소리·맹긴[망근] 졸는 소리)
4. 모자노래 (모즈 뭏는 소리·모즈 졸는 소리)

[6] 雜役謠

1. 방앗돌굴리는 노래 (물방앗돌[물<렛돌] 끄어내리는 소리)
2. 토불미노래
3. 디딤불미노래 (발판불미질소리)

4. 똑딱불미노래
5. 집줄 놓는 노래
6. 짚 두드리는 노래 (짚 두드리는 소리)
7. 흙 이기는 노래 (짚따림소리)
8. 집터 다지는 노래 (집터 다지는 소리 · 달구소리 · 원달귀소리)
9. 새벽질하는 노래 (혹질하는 소리)
10. 흙긋 밟는 노래
11. 산태질노래
12. 벼들노래 (베클소리)
13. 물레노래 (부르는무르에소리 · 미녕쌔 뽑는 소리)

2) 의식요

행상노래 달구노래 진토긋파는노래

3) 타령류

오돌또기 이야흥 서우젯소리

산천초목 봉지가 사거리

관덕정앞 용천검 기타 10여종

4) 동요

동식물요 천체기상요 유희요

풍소요 어희요 자장가

기타요⁷¹⁾

위의 제주도 민요의 일반 분류에 따라 조사가 치러진 조천리 민요를 기능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71)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1993, pp. 43~45.

〈표 3〉 조천 민요조사 일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노동요	농업요	-김매는 노래, 밭밍는 노래, 타작노래	
	제분요	-맷돌노래	
	어업요	-멸치 후리는 노래, 해녀 노래	
	관망요	-망건 노래	
	벌채요	-꿀 베는 노래	
창민요		-오돌또기 -이야흥 -산천초목 -동풍가 -제주아리랑 -아리리리리동동 -서우젓소리 -담방귀타령 -열전소리	
	동요	-아기 놀리는 소리 -자장가 -거미소리 -원님노래	
		의식요	-행상노래
		서사민요	-핑노래

위의 분류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모든 유형의 민요가 조천에서도 거의 확인된다.

단, 〈김매는 노래〉의 한 유형의 〈흥애기〉는 나타나지 않으며, 확인되지도 않는다. 노동요 가운데 〈연자매 노래〉와, 〈나무베는 노래〉, 〈나무 내리는 노

래〉 등은 아직 확인되지 못했다. 조천리에서 거의 모든 제주 민요가 불려지는 이유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사농공상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했기 때문 이리라 보아진다.

둘째, 관망요 중 〈망건 노래〉와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되며, 이 둘은 서로 교류 가창되고 있고, 노동요 중 〈사데소리〉와 〈아웨기〉(김매는 노래)도 망건 작업과 함께 불리고 있다. 〈망건 노래〉로 불리는 요종으로는 〈이야홍〉, 〈아리랑〉(옛아리랑), 〈아리리리리동동〉, 〈동풍가〉 등의 창민요와 서사민요에 해당 되는 〈핑노래〉 등 그리고 노동요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서사민요적인 〈핑노래〉가 특이하게 전승되고 있다. 이 노래는 무가의 가락에 핑을 의인화시켜 인간 세태를 풍자한 서사 민요로 볼 수 있으며, 제보 자가 17, 8세 때 망건을 걸으면서 어른들로부터 들어서 배워 불렀다고 한다. 김영돈의 《제주도민요연구(상)》에 수록된 〈핑노래〉(자료 1256)와 대비하더라도 사설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다.

넷째, 관촌의식에 의한 어업요의 전승이 빈약하다.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임 해 취락은 빈농과 어민들이 거주하였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해녀 작업이 성행했던 까닭으로 〈해녀 노래〉가 풍부히 전승되고 있으나, 조천 마을은 조천 관으로 한국본토와의 문화적 교류, 즉 양반 문화의 영향으로 양반 마을이라는 관촌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 결과 어업이나 해녀 작업을 천한 일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조천 본토박이에 의해 전승되는 〈해녀 노래〉나 〈벧노래〉는 거의 불려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다른 마을에서 조천으로 출가 해 온 사람들에 의해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다섯째, 〈아웨기〉가 특이한 형태로 불려지고 있다. 〈아웨기〉는 다른 지역에서 〈서우젓 소리〉의 가락으로 〈김매는 노래〉로 불려지거나, 놀이 가락으로 불려지더라도 〈김매는 노래〉의 사설을 담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천의 〈아웨기〉는 〈김매는 노래〉의 〈아웨기〉로 불려지기도 하고 〈서우젓소리〉의 가락으로 타령의 사설을 담은 형태의 〈아웨기〉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경우는 사설

이 <김매는 노래>의 내용과는 전연 무관하고 후렴인 경우 <서우젓소리>의 가락을 담고 있다. 이는 조천 지역이 지니는 특이성으로 인해 기존의 민요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것으로 변용시켜 나가는 지역민의 삶의 태도와 문화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사실상

여기서는 조천 민요에 나타난 사실상의 특징만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첫째, 조천에서는 <망건 노래>가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망건 노래>는 후렴이 없이 사실만 불려지기도 하는데, 한편 <이야흥>의 후렴을 삽입해 불려지기도 한다. <망건 노래>로 불려질 경우는 사실은 작업의 실태를 주로 노래하며 정의적인 면이 드러나나, 망건을 견으며 창민요를 부를 경우는 그 사실에 작업실태보다는 삶의 실상과 생각을 폭넓게 담고 있다.

둘째, 조천에서 불려지는 창민요는 대부분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다. 제주에서 대표적으로 불려지는 <오돌또기>에 있어서도 제주의 다른 지역이 자연 풍광이나 경승을 노래하고 일부 연에서 사랑, 이별을 주제로 한 내용이 삽입되는 반면, 조천의 <오돌또기>에서는 사랑이 중점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컨대 조천의 창민요 사실에 향락이 짙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조천의 창민요는 한국본토와 사실면에서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난다. 이는 조천이 제주와 한국본토를 잇는 관문으로서 문화 유입이 수월했기 때문에 사실이 유입된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에서 조천의 창민요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개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V. 결 론

조천은 민요 전승에 있어서 지역적 특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마을이다. 제주도 동부지역에 위치하여 설촌 당시부터 육지부와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

어져 왔고 과거 문물의 유입지였으며, 수많은 목사와 관리, 유배자들의 출입이 빈번했던 곳이라는 점으로 인해 창민요가 특히 발달하였다. 또한 민요의 근간을 이루는 노동요는 조천 마을의 기저 계층인 서민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오게 된 것이다. 또한 조천 마을의 이중적 계층 구조로 말미암아 이곳에서는 제주도의 여느 지역과 같이 보편적 특질이 나타나는 노동요가 전승되는 반면, 지역적 특이성이 드러나는 창민요가 풍부하게 전승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요가 생명력 있게 끊임없이 맥을 이어온 이유는 전승집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천 민요의 전승집단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관변층의 창자이고 다른 하나는 농어민을 중심으로한 노동집단의 창자이다. 이 두 부류의 창자가 조천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는 한 지역에 공존하면서 각기 다른 층위의 노래를 전승시키게 되었으며, 관변층의 창자인 기녀는 창민요를 전승시키는 바탕이 되었고, 노동집단의 창자는 그들 생활의 기반으로 이어져 온 노동요를 전승하였다.

(2) 조천의 노동요로는 <불미노래>, <꿀베는 노래>, <김매는 노래>, <진사디, 아웨기, 쪼른사디>, <멀치후리는 노래>, <망건 노래>, <해너 노래> 등이 조사되었다. 이중 조천리에서 특이하게 전승되는 노래는 <망건노래>다. <망건노래>로는 특히, 창민요와 <김매는노래> 중 <아웨기>가 서로 교류되면서 가창되고 있다. 조천의 노동요는 제주도의 다른 지역의 노동요와 형태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망건 작업시에 여러 요종의 노래들이 불려지고 있으며, 또한 창민요와 노동요가 서로 교류 가창되고 있다. <망건노래>는 지역적 특이성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 노동요이며, 그외의 조천의 노동요에서 보편적 특질이 나타나는 것은 노동요의 전승집단이 오랜 세월 일과 함께 보편적 삶을 누려 온 일반 서민의 노래라는 것과 관련된다.

(3) 조천에서 확인된 창민요로는 <아리랑>(옛아리랑), <동풍가>, <오돌또기>, <산천초목>, <아리리리리동동>, <엽전 소리>, <담방귀 타령>, <서우젓

소리), 〈아웨기〉, 〈관덕정앞〉, 〈영변가〉, 〈계화타령〉 등이다. 이러한 조천의 창민요는 제주도 지역 중 5백년(1416~1914) 현청 소재지였던 성읍 지방과 함께 풍부하게 전승되는데, 제주시, 대정 지방에서도 일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런 창민요는 한국본토 문화와의 교류가 많은 관변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변지역에는 기녀가 기거했던 점으로 보아 기녀에 의해 주로 불러졌던 노래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승, 변이 과정을 거쳐 민간에 유입되어 오늘날의 노동집단에 의해 맥이 이어지며 전승되어 현재의 민요로 정착됐으리라 본다. 조천 창민요와 한국본토 민요와의 상관성은 음악적 측면의 고찰 등 학제적(學際的) 연구가 뒤따라야 본격적 분석이 이뤄지리라 믿는다.

(4) 분류상 특징으로, 민요 분류상 모든 유형의 민요가 전반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김매는 노래〉의 한 유형의 〈홍애기〉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관망요 중 〈망건 노래〉가 특히 이 지방에서 전승되고 있고, 〈망건노래〉로서 창민요가 흔히 차용된다. 노동요와 창민요는 서로 교류 가창되고 있고 노동요 중 〈김매는 노래〉, 〈아웨기〉(김매는 노래)도 망건 작업과 함께 불리고 있다. 〈망건노래〉로 불리는 요종으로는 〈이야홍〉, 〈아리랑〉, 〈아리리리리동동〉, 〈동풍가〉 등의 창민요와 서사민요로 볼 수 있는 〈뽕노래〉, 그리고 노동요 중 일부가 이에 해당된다.

(5) 관민의식에 의한 어업요의 전승이 빈약하다. 이는 과거 조천은 조천관으로 한국본토와의 문화적 교류, 즉 양반 문화의 영향으로 관촌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이 결과 어업이나 해녀 작업을 천한 일로 여기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조천 본토박이에 의해 전승되는 〈해녀 노래〉나 〈뱃노래〉는 거의 불려지지 않고 있다.

(6) 〈아웨기〉나 〈뽕노래〉가 특이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아웨기〉는 다른 지역에서 〈서우젓소리〉의 가락으로 〈김매는 노래〉로 불려지거나, 놀이 가락으로 불려지더라도 〈김매는 노래〉의 사설을 담는 경우가 대부분

분인데 조천의 〈아웨기〉는 〈김매는 노래〉의 〈아웨기〉로 불려지기도 하고, 〈서우젯소리〉의 가락으로 창민요의 사설을 담은 형태의 〈아웨기〉로 불려지기도 한다. 조천의 〈핑노래〉는 무가의 가락에 핑을 의인화시켜 인간세태를 풍자한 서사민요로 볼 수 있는데, 제주도의 다른 지역의 〈핑노래〉와는 사설이 특이하며, 스토리 구성면에서 가장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조천의 창민요는 대부분 사랑, 연정을 노래하고 있고, 한국본토의 잡가와 사설에 있어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조천이 제주와 한국본토를 잇는 관문으로서 문화 유입이 수월했기 때문에 사설의 유입이 쉬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점에서 창민요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개방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창민요 사설에 향락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조천 마을 민요는 제주도 민요의 지역적 특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조천 마을의 역사적, 인문 지리적 환경, 생업 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천 지역에서는 노동요, 창민요, 동요, 서사민요 등 민요의 모든 유형이 전반적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농어촌과는 유다르게 민요의 총체적 연구를 가능케 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관망요의 전승으로 관모 공예 지역과의 민요의 비교 연구 및 작업 집단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가 요망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성읍 지역 민요와 한국본토 민요와의 교류에 대한 조사 및 비교 연구, 전파 경로 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 음악적 고찰이 심층적으로 병행되어야 그 비교 연구는 틀이 잡힐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민요 연구가 마을 단위의 국지적으로 이루어진 바 여러 지역 간 폭 넓은 민요의 비교가 되지 못했으며, 한국본토의 민요를 현장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과 한계를 느낀다.

參 考 文 獻

1. 資 料

- 金玟珪, 「朝天邑誌」, 濟州文化, 1991.
- 金寶鉉, 「朝天誌」, 濟一印刷社, 1976.
- 金榮敦, 「濟州島民謠研究(上)」, 一潮閣, 1965.
- ,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1993.
- 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제주도 민요 해설집)」, 대한정판사, 1992.
- 북제주군, 「제33회 통계 연보」, 1993.
- 任東權, 「韓國民謠集 II」, 集文堂, 1974.
- , 「韓國民謠集 III」, 集文堂, 1975.
- , 「韓國民謠集 V」, 集文堂, 1980.
- 장사훈, 「國樂大事典」, 세광음악출판사, 1984.
- 좌혜경, 「제주전승동요」, 集文堂, 1993.
- 秦聖麒, 「濟州島 民謠」, 희망 프린트사, 1958.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口碑文學大系 9-1」, 고려원, 1980.
- , 「韓國口碑文學大系 9-2」, 고려원, 1981.
- , 「韓國口碑文學大系 9-3」, 고려원, 1983.
- , 「韓國의 民俗音樂: 濟州道 民謠篇」, 1984.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2, 14, 15」, 1990.
- , 「韓國口碑文學大系 2-1」, 고려원, 1980.
- , 「韓國口碑文學大系 2-7」, 고려원, 1984.
- , 「韓國口碑文學大系 4-1」, 고려원, 1980.

2. 論 著

- 姜庚守, 〈濟州道 民謠의 分析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0.
- 姜騰鶴, 「旌善아라리의 研究」, 集文堂, 1988.

- 康文裕, 〈제주도 상여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0.
- 姜性均, 〈제주도 김매는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0.
- 김무현, 「한국노동민요론」, 集文堂, 1986.
- 金順斗, 〈濟州民謠의 律格 研究〉,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4.
- 金承泰, 〈제주도의 연자매와 그 민요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6.
- 金榮敦, 「濟州島 民謠 研究: 女性 勞動謠를 中心으로」, 조약돌, 1983.
- ,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 民謠學會, 「民謠論集 創刊號」, 集文堂, 1988.
- , 「民謠論集 第2號」, 民俗苑, 1992.
- 邊聖九, 〈제주도 서우갯소리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86.
- 성기옥, 「한국 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 양영자, 〈제주 민요 시집살이 노래 연구〉, 濟州大學校 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1991.
- 張德順의 2人, 「口碑文學概說」, 一潮閣, 1971.
- 鄭東華, 「韓國民謠의 史的研究」, 一潮閣, 1981.
- 趙東一, 「敘事民謠研究」, 啓明大學校 出版部, 1970.
- , 「구비문학의 세계」, 새문사, 1981.
- 趙泳培, 〈제주도 노동요의 음조직과 선율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碩士學位 論文, 1984.
- , 「濟州道 民俗 音樂」, 新亞文化社, 1991.
- , 「濟州道 勞動謠 研究」, 예술, 1992.
- 左惠景, 〈濟州 傳承童謠 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1991.
- , 〈韓國民謠의 辭說 構造 研究〉, 中央大學校 博士學位 論文, 1992.
- 최 철, 설성경, 「민요의 연구」, 정음사, 1984.
-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第12號」, 1992.
- 黃涓江 외, 「韓國文學研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 洪貞杓, 「濟州道 民謠의 解說」, 省文社, 1963.

3. 外 書

A. B. Lord, *The Singer of Tales*. Athneum Newyork. 1973.

Stith Thompson, *Motif-Index of Folk Literatu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

M. Dorson, *Folklore and Folklife*.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1972.

Ruth Finnegan, *Oral Poet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高橋亨. “濟州島の民謡”. 「東方學紀要 第二集」, 天理大 東洋學研究所, 1968.



<부 록>

조 천 민 요

A - 1

오 돌 또 기 ①

고 운 산 (여 · 85)

오돌또기 저기춘향이 나온다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다 제가머리로 갈까나

칠폭팔폭은 여덥폭 치매
질 고더끄난 복판이 남앗소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다 제가머리로 갈까나

돈닷돈밧고요 삼밧되 들엇더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물멧지 단속곳 다짚어져구나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다 제가머리로 갈까나

A - 2

오 돌 또 기 ②

이 이 완 (여 · 79)

오돌또기 저기춘향이 난다
달도밝고 내가머리로 갈까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산천초목은 나날이 짧아지고

우리청춘은 나날이 늙어지노라

동그대당실 동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다 내가머리로 갈까나

A - 3

이 야 홍 ①

고운산 (여·85)

(1)

이야홍 아하홍 그러고 말고서

나맹긴아 꺾까지라 혼들육장 시배긴 맹긴

이야홍 그러고 말고서

이야홍 아하홍 다이를 말이나

삼백도리 진스장 맹긴가

이야홍 그러고 말고서

이야홍 아하홍 다이를 말이나

(2)

나맹긴아

꺾까지라

혼들육장

시배긴맹긴

이야홍 야아홍 그러고 말고서

이야홍 야아홍 다이를 말이나

요맹긴을

뵈아야

눈미낭장시

믿엇구나

이야홍 야아홍 믿어랜 맹긴가
이야홍 야아홍 다이를 말이나
함덕집새기 믿어랜맹긴가
이야홍 야아홍 그러고 말고서
이야홍 야아홍 다이를 말이나

A - 4 이 야 홍 ②

이 이 완 (여 · 79)

청춘에 할일이 내그리없더냐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우리가 요렇게 내살다가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흔번느착 실수가 똤면은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만추야 청산에 운무로구낭아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시집만 가기를 좋아나말아라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물도나 산도나 엇어랜섬이라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귀양마련은 날보낸 어머니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낭도나 팔즈랑 굶어랜나무
이야홍 야아홍 다굴을말인가

아하양아하야

어허양어허요

A - 6

산 천 초 목

A : 이이완(여·79)/B : 고운산(여·85)

A 산천초목 소속있나난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 아이고아이고 받음네다

B 산천초목 소속있난디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산의올라서 옥을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로구나

A 들을타고 꽃밭되드니 발자초마다 상네가난다

B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도 받음네다



A - 7

동 풍 가

A : 고운산(여·85)/B : 이이완(여·79)

A 실시리 동풍에 굶은비는 하나둘씩 오는데

지화야 연풍에다 임만소식 나노라

에행어형 어허야 어럴마 두리동동 사랑가로만 놀아보자

에행어형 어허야 어럴마 두리동동 너하고 나하고만 놀아보자

난봉이 낫구나 또로또난봉 낫구나

동넛집 총각이나 난봉만 낫구나

원산대천에 벧노래가자
 내가널만치 생각이 이시면
 풀보리야 끓여도 날끌여간다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벧노래가자
 가면가고 말면은 말았지
 초신을 신고서 시집을가나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벧노래가자
 가면가고요 말면은 말았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님은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낭속낫네
 원산대천에 벧노래가자

제주시립중앙도서관
 JEJU UNIVERSITY LIBRARY

A - 10

담방귀타령

고운산 (여·85)

귀야귀야 담방귀야
 동래야울산 담방귀야
 너의국은 어데다두고
 조선의국으로 왔더나
 귀야귀야 담방귀야

- B : 일락서산에 에에야 해는지어가시는구나 어~허 월월하라
- A : 요때는 어느뎨고 춘삼월호시절이로구나 에~ 어허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어~ 월월월월 어야에헤에에 월월월월하라
- A : 저오름에놀던 역즈매수룩이로구나 에~ 어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아어~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 어야 월월월월 에에에헤에 에헤에 월월월월 월월하라
- A : 실간저니도 바롱바롱 갈간저니도 바롱바롱 에헤~ 에에어허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어러러월월 스시멩천 바쁜질은도 골골마다 잊어지시는구낭아 에에에에에에 월월하라 저레덜나사라
- A : 나조롬에조친 뜬가라물 수룩이로구나 어허에에~ 어허어허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어러러월월 어러러 어러어러어야 월월월월월월 어허어허월월 월월하라 저레덜나사라
- A : 뒷골에놀던 단지매수룩이로구나 어허어에~ 어허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어~ 호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 어야 일락서산에 해는다지어오랏저 이 불덜아도 나 말을 잘들 어그벙에 월월월 돌아오시는구낭이야
- A : 요농사를 지어다가 노부모 어린처즈 살려나볼까 어에허허에~ 어형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이야 에헤에에에어야 월월월월월월월월월월 저레덜 나덜사라
- A : 요불덜아 나조롬에 잘조치라 궁비애기 잡아주마 어허어~ 어러러월월이

- 로구나 에~ 저물막으라 아요~ 월월하라
- B : 이물덜아 에~ 나소리를 들어그넵에 귀가 느릿느릿하게시리 노픈디만블
라근 잘도~ 돌아넵기멍 이물덜아도 잘도돌아오라 돌아오라 월월월월월
월하라
- A : 영실기암에 놀던 배롱매수룩이로구나 어허어~ 어허어헝 어러러월월이
로구나 에~ 아어허어 월월하라
- B : 스시멩천 바쁜질이로구나 어허어어~ 어허월월 월월월월하라
- A : 백록담에 놀던 반관이수룩이로구나 어허어에허허 저 물막으라 어허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일락서산~ 해는다지어오람신디도 이물덜아 나소리를 잘들어근 귀가 느
릿느릿덜 돌아오멍 월월월월 월월하라
- A : 산방굴사에 놀던 가라삼둥이수룩이로구나 어헤어~ 저 읍을잘채우라 뒤
를 잘 풀아야한다 어어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어허월월월월 어허월월월월하라
- A : 정방폭포에 놀던 살쭉매수룩이로구나 에헤에~ 저물막으라 에헤어 어러
러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스시멩천~ 바쁜질을 골골마다 어허어 잇어를가시는구나 어허월월 월월
월월하라
- A : 성산일출에 놀던 접쭉이수룩이로구나 어허어 에~ 어허어 어러러월월이
로구나 에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에헤에에헤 월월하라
- A : 사봉낙조에 놀던 가라물수룩이로구나 에헤에~ 에헤 어러러월월이로구
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 에헤에 월월하라 저레덜나사라
- A : 영실기암에 놀던 청송이수룩이로구나 어헤에~ 잘덜마아라 에헤에~ 어
러러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스시멩천 바쁜질을 골골마다 잊어지시는구나
월월월월 월월하라
- A : 굴림추색에 놀던 유마볼수록이로구나 어헤에 저물막으라 어허어 어러러
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어허이 에헤에 월월하라
- A : 썰간저니도 바롱바롱 갈간저니도 내팔즈나 너팔즈나 혼팔즈로구나 에헤
에에에 어러러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 어허이 에헤에 월월하라
- A : 일소장의 놀던 빌락쟁이수룩이로구나 어헤에 어러러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 B : 산을~ 넘고 가려무나 물을넘고 가려무나 어허어~ 월월월월 월월하라
- A : 이소장의 놀던 큰더렁췌수룩이로구나 어헤에에에에 어허~ 어러러월월
이로구나 아오~ 월월하라
- B : 스시멩천 바쁜질은도 골골마다 어허허어 잊어지시는구나 에헤~ 에헤에
월월하라 저레덜나사라
- A : 삼소장의 놀던 월라 물수룩이로구나 어허어에 저물막으라 어헤~ 어러
러월월이로구나 에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월월 월월월월월월 에헤야에에~ 월월월 월월하라
- A : 스소장의 놀던 구육쟁이수룩이로구나 에에 큰아덜아 저 물막으라 에에
~ 어허어어어 어러러월월이로구나 에에 아오~ 월월하라
- B : 월월월월~ 월월 월월월월 월월월월하라
- A : 양꿏잡앙 지친듯이 잘덜물아라 잘못하면 저역즈매 수룩 어깨알로 도망
가느니라 어헤에~ 어러러월월이로구나 에~ 아오~ 월월하라

A : 고수천 (여 · 64) / B : 이이완 (여 · 79)

어허야뒤야 사데로구나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아침사데는 일시작사데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낮이사데는 일버친사데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일락서산으로 해떨어진다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검질손도나 좇아나진다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일광님도다 집으로가정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일만역군덜도 집으로가정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잠간전의나 다막쳐간다
 아앙아하아야에헤양에헤에요

A - 14

꿀 베 는 노래 (출비는 흥애기)

고 수 천 (여 · 64)

허야디야 산이로구나 에헤~ 에헤~ 산도설고 물도서룬데 에헤~ 흥애기로구나
하늬빚름은 사랑사랑 불어온다마는 에헤~ 날씨는 곳어가고 오호~ 흥애기로구나
요출비영 쉼벙영 놔두민 에헤~ 동지선들 설한풍에 에헤~ 흥애기로구나
날씨는 검칙검칙 뉘여가곡 에헤~ 비가올까 날이줄까 모를로구나 에헤~ 흥애

기로구나

저산중에 먹는 ㅁ쉬덜이 에헤~ 칠월백중 돼여가민 지쳐저온다

산은첨첨 청산이여 에헤~ 물은 점점 녹수로구나 에헤~ 흥애기로구나

칠팔월 냄새가 불어오민 에헤~ 촛을 ㅎ저 밤낮이나 에헤~ 해매는구나

A - 15

뚝딱불미노래

이 이 완 (여 · 79)

불이나불엿 얻어나먹저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설운나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불미나불엿 얻어나먹게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우리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닥닥 푸르릉닥닥



A - 16

원님놀이

A : 이이완(여 · 79) / B : 고운산(여 · 85)

A : 혼다리 인다리 거청대청 원님스설 구월나월 장정밭디 지등에 청

B : 혼다리 인다리 거청대청 원님스설 구월나월 장정밭디 버드남이 얼룽질룽
지등에 청

A - 17

거미 노래

이 이 완 (여 · 79)

거미거미	왕거미야
네줄내줄	닷줄일세
아진게	다진게
동목골	동나무
울랑굴	살랑굴
남원군	백일도
충청도	호랑이

A - 18

아기 어르는 노래 (애기 놀리는 소리)

이 이 완 (여 · 79)

둥둥 둥게야



둥게만이 깨꾸리

늪야덜놈 뒷다리

경상도 호박줄 추적추적 늘어지고

너의삼촌 어디갔나

지장밭덕 출비레갓다

둥둥 둥게야

A - 19

자 장 가 (애기 흥그는 소리)

이 이 완 (여 · 79)

왕이자랑	왕이자랑	
나뭇생이	누왕자라	
사을상뒤	메올아기	
요다음에	커나면은	
공부잘ㅎ여근	대통령이나뉘라	
어진이	누왕자라	누왕자라
우리애기	잘도잔다	잘도잔다
나라에랑	충신동이	
부뉘에랑	소즈동이	
저게가는	검동개야	
이레오는	소동개야	
우리아기	재와도라	
아니재와주당	질긴질긴	
총배로	걸려다근	
앞팡더레	훈가달	
뒷팡더레	훈가딜	
지폰지폰	천지소레	
드리챿닥	내챿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A 1 ~ A 19 : 金榮敦 「濟州의 民謠」, 新亞文化社, 1993.

B - 1

제 주 아 리 랑

고 운 산 (여 · 85)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고개로 날만냉겨다오
냉겨줄 마음은 고새간절나도
어머니 등살에 못만냉겨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났소
아리랑 고개로 날만냉겨다오
아실아실 춥거든 내품에만자고
베개가 노프진 나폴만베어라

B - 2 엽 전 소 리 (솔캉솔캉)

고 운 산 (여 · 85)

솔캉은 솔캉은 존돈폰 소리에
아니나 녹을놈 개잡놈엇구나
네가나 잘나서 일색이더나
내몸이 잘나서 일색이여
솔캉은 솔캉은 존돈폰소리에
아니나 놀아랜 개잡년이더나
요리도 놀다가 나죽어불민
아무나 소용도 없어나진다

B - 3 동 풍 가

A : 이이완(여 · 79) / B : 고운산(여 · 85)

- B. 실시리 동풍에 궂인비는 하나둘씩오는데
지화야 연풍에다 님소식만 놓시다
- A. 실시리 동풍에 궂인비 주리줄줄오는데
지화야 연풍에 임소절만 낮구나
아서라 말아라 네가그리 말어라

B - 4 **이 야 홍 (B)**

고 운 산 (여 · 85)

이야홍 아하홍 그러고말고서
나맹긴아 무꺼지라 혼들육장 시배진맹긴
이야홍 그러고말고서
이야홍 아하홍 다이를말이나
삼백도리 진소장맹긴가
이야홍 그러고말고서
이야홍 아하홍 다이를말이나



B - 5 **망 건 노래**

이 이 완 (여 · 79)

함덕짚새기 믿어랜맹긴아
정의나줍술은 믿어랜맹긴아
눈미나낭장시 믿어랜맹긴아
잇개나뒤개나 조리방똥은

건지만호여도 들방패건지여
치매만호여도 연반물치매여
신만신어도 은돈반짜리여
보선만신어도 코재비보선

B - 6 오 돌 또 기

고 윤 산 (여 · 85)

오돌또기 저기춘향이 나온다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칠폭팔폭은 9뽀폭 치매
 썰고더끄난 복판이 남았소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갈까나
돈닷돈밧고요 삼밧되 들엇더니
물뽕지단속옷 다찢어져구나
 등그대당실 등그대당실 여도당실
 연자버리고 달도밝고 제가머리로 갈까나

B - 7 아 기 놀 리 는 소 리

이 이 완 (여 · 79)

둥둥	둥게야
둥게만이	뽕꼬리
뉘야덜눔	뒗다리
경상도	호박줄 추적추적 늘어지고
너의삼촌	어디갓나
지장밭되	출비레갓다
둥둥	둥게야

B - 8 거미소리 (동요)

이이완 (여·79)

거미거미	왕거미야
네줄내줄	땃줄일세
아진게	다진게
동목굴	동모루
울랑굴	살랑굴
남원굴	백일도
충청도	호랑이



B - 9 원님노래

이이완 (여·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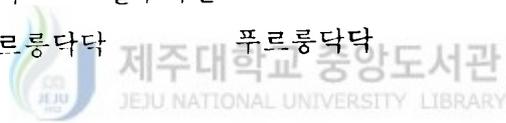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청 원님소설
 구월나월 장정밭되 지등에 청

흔다리 인다리 거청대청 원님소설
구월나월 장정밭의 버드남이 얼롱절롱 지둥에 청

B - 10 불미노래 (똑딱불미)

이 이 완 (여 · 79)

불미나불영 얻어나먹저
 푸르릉다닥 푸르릉다닥
우리나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다닥 푸르릉다닥
불미나불영 얻어나먹게
 푸르릉다닥 푸르릉다닥
불쌍흔어머니 날무사난고
 푸르릉다닥 푸르릉다닥



B - 11

자 장 가 (아기 재우는 소리)

이 이 완 (여 · 79)

왕이자랑 왕이자랑
나뽕생이 누왕자라
사육상티 메울아기
요다음에 커나면은
공부잘하여근 대통령이나뉘라
어진이 누왕자라 누왕자라

우리아기	잘도잔다	잘도잔다
나라에랑	총신동이	
부모에랑	효자동이	
저레가는	검동개야	
이레오는	소동개야	
우리애기	재와도라	
아니재와주당	질긴질긴	
총배로	걸려다근	
앞팡더레	훈가달	
뒷팡더레	훈가달	
지폰지폰	천지소레	
디리챗닥	내챗닥	

B - 12



고운산 (여·85)

- A. 산천초목 소속있나난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 아이고아이고 받음네다
- B. 산천초목 소속있난되 구경가기가 반갑도다
 산의올라서 옥을캐니
 이름이 좋아서 산옥이로구나
- A. 물을타고 꽃밭되드니 발자취마다 상네가난다
 받음네다 받음네다
 제화?찌도 받음네다

B - 13

담 방 귀 타 령

고 운 산 (여 · 85)

귀야귀야 담방귀야
동래야울산 담방귀야
너의국은 어디다더냐
조선의국으로 왔더냐
귀야귀야 담방귀야
동래야울산 담방귀야

B - 14

아 리 리 리 리 동 동

고 운 산 (여 · 85)

아리리리리동동 시리시리리뎡뎡
연풍년리리리 속잎속난디
원산대천에 뱃놀이가자
호좁은골목에 단둘이만나서
내혼자살았나 우리둘이살았지

B - 15

엽 전 소 리 (슬캉슬캉)

고 운 산 (여 · 85)

슬캉은슬캉은	존돈폰소리에
아니아놀도	개잡년낫구나
놉시다놉시다	젊은때놀아요
늑어나지면은	못노는구나야

B - 16

꿀 베 는 노래 (출비는 소리)

고 수 천 (여 · 64)

허야디아	산이로구나	에헤~ 에헤~
산도설고	물도설은데	에헤~ 흥애기로구나
하늬보름은	술랑술랑	불어온다마는 에헤
날씨는	긋어가고	오호~ 흥애기로구나
요출비영	쉐멕영놔두민	에헤~ 에헤~
동지섯들	설한풍에	에헤~ 흥애기로구나
날씨는	검치검치	뉘여가꼭 에헤~
비가올까	날이줄까	모를로구나
에헤~	흥애기로구나	
저산중에	먹는모쉬덜아	에헤~ 에헤~
칠월백중	뉘여가민	지쳐저온다
산은첩첩	청산이여	에헤~ 에에~
물은점점	녹수로구나	에헤~ 흥애기로구나
칠팔월	놉새가	불어오면 에헤~
출을하저	밤낮이나	에헤~ 헤매는구나

B - 17 김 매 는 노 래 (진사디)

이 달 근 (여 · 75)

어긴~여~랑	사~데로~다
검질~짓고~나	끌너~른 밧~되
앞멍~에~야	들어~나오~라
뒷멍~에~랑	쳐~나지~라
검질~보~고	검~질매~자

B - 18 김 매 는 노 래 (아웨기)

고 수 천 (여 · 64)

어허디허랑 사데로구나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아침사데는 일시작사데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낮이사데는 일버친사데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락서상으론 해떨어진다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검질손도나 좃아나간다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관님도나 집으로가정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일만역군털도 집으로가정

아하아하양 에헤양에헤에요
잠깐전의나 다뭇쳐간다

B - 19

김 매 는 노래 (진사디, 옛사테)

이 이 완 (여·79)

어허여랑 상사테야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검질짓고 굴너른밭뒤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소리로나 우겨근가자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어허여랑 사테로구나
 어영허야 뒤야로구나
산아산아 수영도산아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가운 될로 질이나나라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산에올라 옥을캐니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이름이좋아서 산옥인가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어허야뒤어야 방하로구나
 어영허야 뒤야로고나

B - 20

떨 치 후 리 는 노 래 (그물 당기는 소리)

이 이 완 (여 · 79)

- A.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 B. 어허어형 어야로다
- A. 베릿베가 주장이여
- B. 어야허야 어야로다
- A. 어이여랑 산이로다
- B.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 A. 베릿베가 주장이여
- B. 어야허야 어야로다

B - 21



서 우 젓 소 리

황 석 하 (여 · 82)

- 안여뵈여 숨은여정살여
-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 영감영감 도채비영감
-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 놀아놀아 안여로놀자
-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 그물코이 천코이라도
-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 베릿베심은놈이 주장이로다

아양아하아야 어허어양어허어요

- B 1 ~ B 21 : 1989년 民謠學會 공동조사, 필자채록.

C - 1 출 비 는 소 리 (꽃배는 노래)

89. 1. 30 교수천

허야뒤야 산이로구나 어허어~
요출비영 저슬들건 쉼이곡 흥애기로구나
하늬보름은 설랑설랑 불어오건마는 에~
날씨는 곳어간다 어허어~ 흥애기야
저산뒤에 놀던 모쉬덜아 어허어에~
동지선들 설한풍에 에에~ 집을 좇앙온다
칠팔월 하늬보름에는 에~
비가오는 법이로다 어허어~ 흥애기야
날씨는 검칫검칫 해여가고 에~
자골씨는 딱딱 뛰엄구나 어허어~ 흥애기야

C - 2 ㄱ 레 ㄴ 는 소 리 (맷돌질 노래)

89. 1. 31 a : 교수천 b : 김찬규

이연이연	이여동하라
이여방애라그네	고들배지영
이연ㄱ레굴아그넵에	조낙이나일찍하저
조낙이나그넵에	붉은제하저

조반이사	늦어랜집의
놈의첩광 소남윗보름	소린나도랑 살을매웃나
조낙이덜사도	일찍이허리
소랑소랑이라그넝에	하늬나불라
우리어머니	날무사나근
양친부모님으랑	배놓아오게
가난허고도 서난허집의	날 시집보내여
하늬 내라그넝에	놈으모을 들엉
허물밤에도	밑닷말ᄃ난
관관새에라그넝에	불붙어가듯
주억상회가도	다섯을받앙
낭도 좋아랜낭은	관덕청에랑 대들보걸엉
씨아바님신디도	둘디려두곡
일천선비라그넝에	절마탐서라
임과나는	반착이로구나
낭도 팔즈라그네	곳어랜 낭근
낭도나 늙어지면	고목이웁다
질곳집의라그네	디들광놓앙
나도나 늙어지난	허던일도 허사라
일천선비라그넝에	발맞암서라
이여이여도	이여도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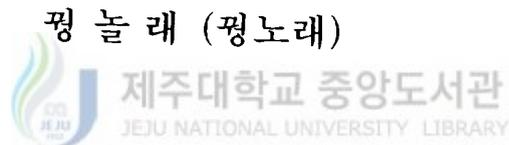
C - 3

맹 긴 못 는 소리 (망건 걸는 노래)

89.1.30 이이완

나맹긴아	못아도지라
혼코두코	시도툰맹긴
정의나좁쌀은	믿어랜맹긴
함덕집세기	믿어랜맹긴
눈미낭장시	믿어랜맹긴
어서펼짜	못아나지라
잇개나뒗개	조리방똥은
건지만해여도	들방패건지
치매만입어도	연반물치매
신만신어도	은돈반짜리
나맹긴아	못아나지라

C - 4



평 놀 래 (평노래)

89. 1. 30 이이완

동지선들	설한풍에
아홉애기	열두등에
주례등을	앞세우고 뒤세완
옴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흐니
난뒤없는	콩흔방울이
닝끼리고	땡끼리난
낭군님아	낭군님아
이콩제발	먹지마오
간밤에	꿈보드니
앞밭틸론	머리점은

황개가	올러릅데다
이년이년	날배고팡 꺾여두영
새깃소방	묻어놓앙 흘년이다
어서먹소	콧죿이난
닝끼리고	땡기련
보들보들	죽어가난
동네나	할아버진
집윗할망	복이더냐
난뒷영감	복이더냐
영기덩기	가지고가난
하르바지	야개기나 주고가소
우리집의	손지방되나 흘거다
놀개기나	주고가소
놀개긴	이께기에
지름장물	불라서 굶졌다
터럭흔춤	박매여주난
열두무에	무꺼놓안
아이고지고	울엄시난
가마귀놈이	터박터박
노려오며	곤는말이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흐니
나과살기	어찌흐냐
조꿈시니	비둘기가
터왓터왓	노려오며 곤는말이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하니
나과살기	어찌하니
가마귀놈이	곧는말이
이놈의	눈불갱이 아덜아
내가몬처	말하는데
너가무슨	방해나
올령도	기룡산
산좋다	물좋다
산구경	물구경 갖더니
촌이슬	맞아브니 눈이북다
멍통쟁이	아덜만이 못홀게 뭐잇느냐
소레기놈이	터박터박
노려오며	곧는말이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하니
나과살기	어찌하니
입이영	쭈쭈흔게
무서우난	저랑기영 흡센헤연
음신돔신	좃어먹으며가다
갈남밭동네로나강	좃어먹게
낭군님아	낭군님아
낭군님	재주가 용하니
재주나	흔번 부리십서
하늘광	땅새에
곰곰이	올라브난
조칫년은	갈남잎



앞생이 호나더견
 해트랑케곰안 누워시난
 똥소래기눔이 노려오란
 이구석 주악
 저구석 주악
 조치씨랑 보아지건
 다잡아먹주 해엿더니
 곰곰이 생각흐니
 갈남입입생일 을안보난
 그속에 곱아시난
 앞발로 꼭눅두런 잡아먹젠흐난
 낭군님 낭군님
 낭군님 재주가 용해연
 재주실력 바라봤소
 읍서 여기는 좃어먹을디가 없으니
 수월진디로나 강 좃어먹게
 조칫년은 몸죽으난
 호로록호게 기여들고
 매눔은 놀개기별견
 못들어가난 석들열홀만
 어디시민 조치씨랑 다잡아먹주
 조칫년은 옴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흐니
 내창바우에 갖더니
 개굴레비눔이 쪼짹내들으며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하니
나과살기	어찌하냐
웨너는	태독배가 뉘었느냐
식설적의	아바지 죽고
두설적의	어머니 죽언
느진덕이	정하님이
아바지가	먹는몹
어머니가	먹는몹
밥을하영	취브난
배는	태독배가 뉘엇소
웨몸은	어리룩 해였느냐
요왕의	말젯돌
애기방의	들엇더니
총배로	무꺼놓아
때려브니	몸은어리룩
어리룩	해였다
웨눈은	빨롱해였느냐
하도글을	슬퍼브난 빨롱해였다
웨가달은	앙씩해였느냐
우정싱	좌정싱 흘때
물을하도	타브난
가달은	앙씩해였다
앞발로	꼭죗이난
보들보들하난	요놈도
재주가	죗구나
두번을	죗이난

느릿하게 죽으난
 음신듬신 좃어먹으며
 가노라 하니
 다리흔착어신 핑이내도리며
 대죽만서 수다시끼
 개보호여 가라하니
 나과살기 어찌하니
 핑끼리 핑끼리
 살더라 흠네다 옛날에

● C 1 ~ C 4 : 『한국민요대전 : 제주도민요 해설집』, 문화방송, 1992.

D - 1

타 작 노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 유 생 (남 · 75)

어야도홍
 어야도홍
 어야도하야
 어야도홍
 저기저기
 저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금도끼로
 찍어내고
 은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짓꼭
우물안집
모셔다가
천년만년
살고지고
어야도홍
어요하야
어야도홍아
어야도홍
어요하야
지껏구나
잡껏구나
어야도홍
어요하야
어요하야
요건진꼭
요놈을 때린다



D - 2

해 너 노래

김순녀(여 · 55)/이갑분(여 · 51)

1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어느해민 요네착을 누겔주어
 이여사 이여사
 천년만년 지고나가자 이여도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만리나장성 번은밧은
 이여사 이여사
 종종이 사려나놓고
 이여사 이여사
 우리나라심은 요네착을 지고나가자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어멍어멍 날난어멍 무신날에 날나던고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해도나달도 없는날에 날나던가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하고나싶은 글공부는 아나시켜 주고허영
 이여사 이여사
 하거나싶은 해초영업 날시켜 주엇던가
 이여사 이여사

이여도 산일러라 이여도사나
 저라 저라 저라 저라
 이여사 이여사
 훈모를랑 지고야가고
 지고야가고
 훈모를랑 놀고나가자
 이경가자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요넬지고 어덜가리
 이여사
 진도나바당 골로나가세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도 산일러라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저산천은 해년마다 푹푹 꿰어나오고
 이여사
 요네나몸은 연년마다
 이여사 이여사
 소곡소곡 늙어나진다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요물아래 은과금은
 이여사 이여사
 갈대같이 깔렸건만
 이여사 이여사
 높은안개에 울매로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도 산일러라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
 요넬젓꼭 어덜가리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나
 일본대판 가신님은
 이여사 이여사나
 돈이나벌면 오건마는
 이여사 이여사나
 우리나라힘은 어덜가고
 이여사 이여사나
 아나나오나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어서야지라 어서가고
 이여사나 지어나가자



병든남편 물을주나

이여사 이여사나

개돼야지 재를주나

이여사 이여사나

우는애기 젖을주나

이여사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물로야뽕뽕 돌아진섬에

이여사 이여사

삼시홀몸 물질허영

이여사 이여사

하고나싶은 돈벌영

이여사나 이여사

아들딸 글공부나 시켜보자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병든남편 약이나져당

이여사 이여사

살려나보카 이여사

이여사

하네야잡은 선주야사공 뱃머루만 돌려야주소

우리야젓는 선허리로 우경가세

이여사나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여사
이팔청춘 소년덜아
이여사 이여사
우릴보양 웃지나말라
이여사 이여사

D - 3 행 상 노 래

고 두 추 (남 · 66)

어야 어~ 야 두리다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야 어~ 야로다
인생한번 죽어나지면
어야 어~ 야로다
사람한번 죽어나지면
어야 어~ 야로다
또다시 오지는 못하리라.
어야 어~ 야로다
한라산아 잘 있거라.
어야 어~ 야로다
일가친척을 다버리고
어야 어~ 야로다
간다간다 나는간다
어야 어~ 야로다
공동산천이 얼마더냐

어야 어~ 야로다
일가친척을 다버리고
어야 어~ 야로다
술집에 갈때는 친구도 많더니만
어야 어~ 야로다
공동묘지는 나혼자 뿐이로세
어야 어~ 야로다
기생하나 들은하나
어야 어~ 야로다

D - 4 아 웨 기

고 두 추 (남 · 66)

선소리 아~ 야 어~ 야 으~ 은
아~ 야 어~ 야 으~ 은
놀다가자 자다가자 이 밤이 새도록 놀다가자
아~ 야 어~ 야 으~ 은
구야구야 담바구야 동래울산 담바구야
아~ 야 어~ 야 으~ 은
물을주려 나왔던가 금을주려 나왔던가
아~ 야 어~ 야 으~ 은
은도없고 금도없어 담바구씨를 갖고 왔구나
아~ 야 어~ 야 으~ 은
저기저기 저산밑에 담바구씨를 뿌렸구나
아~ 야 어~ 야 으~ 은

낮에는 태양을맞고 밤이나들면 찬이슬맞아
 아~ 야 어~ 야 으~ 은
 속있나고 걸있나서 점점자라 왕성하야
 아~ 야 어~ 야 으~ 은
 뇌모나반듯 정도칼로 어슷비슷이나 썰어다가
 아~ 야 어~ 야 으~ 은
 영감의쌘지도 한쌘지요 총각의쌘지도 한쌘지로구나
 아~ 야 어~ 야 으~ 은
 연무하령이 금떨어진다.
 아~ 야 어~ 야 으~ 은

● D 1 ~ D 4 : 1994년 현지조사, 필자채록.

E - 1 다리 송 당 (橋來, 松堂)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다리(橋來) 松堂 큰 색시들은
 피방아 짚기가 能手로구나
 威德近方 큰 색시들은
 신총비비기가 能手로구나
 朝天近方 큰 색시들은
 網巾뜨기가 能手로구나
 新村近方 큰 색시들은
 涼太 뜨기가 能手로구나
 別刀近方 큰 색시들은
 宕巾(탕진) 뜨기가 能手로구나
 道頭近方 큰 색시들은

帽子 뜨기가 能手로구나
 高内 涯月 큰 색시들은
 그물 뜨기가 能手로구나
 大靜近方 큰 색시들은
 자리치기가 能手로구나
 西歸高山 큰 색시들은
 물허벅 장사로 다 나간다.
 淸水 닥마루(楮旨) 큰 색시들은
 기름장사로 다 나간다.
 金寧 갈말(東福) 큰 색시들은
 떡움박 장사로 다 나간다.
 어등(否源) 무주애(月汀) 큰 색시들은
 푸나무 장사로 다 나간다.
 終達近方 큰 색시들은
 소금장사로 다 나간다.
 旌義山앞 큰 색시들은
 길삼하기로 다 나간다.
 表善 또미(爲美) 큰 색시들은
 柎栢씨 따기로 다 나간다.
 西歸近方 큰 색시들은
 全鰵 따기로 다 나간다.

朝天里 下洞 金時鳳 唱 1976年 10月 30日

감실감실 강바위에
우리오빠 무정하다
얻으면 계집이요
버리면 남이로다
내일오는 신랑에게
무엇이라 말하오리

朝天里 下洞 金時鳳 唱 1976年 10月 30日

E - 3

망 건 뜨 기 노래 ②

강실강실 강도령은
강실책을 옆에끼고
회낭아랜 장가드난
열두거리 기와집에
수물여덟 토박방에
웃들어라 하사평풍
평풍뒤에 옥동자는
젓을달라 깡악깡악
물결같이 흐르는젓
체면말고 어서주게
마부야 말돌려라
오든길로 행차하자
오늘가는 신랑님아
어제오든 신랑님아
내말하나 들었잖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비단에도 얼이있고
대단에도 투색하고
물위의 이런몸이
한심없이 되오리카

朝天里 下洞 金二善(女) 唱 1976年 10月 20日

E - 4 망 건 뜨 기 노래 ③

이물에 이사공사
고물에 고사공아
허리간에 화장아야
물때가 점점 늦어간다.
달감아라 돛을 달아라
술녕송 배 띄워라
강나루 청포대 달마중 가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朝天里 中上洞 金秉和翁 唱 1976年 11月 1日

E - 5 망 건 뜨 기 노래 ④

쑥따당결작은 노동하여라
노동한 돈으로 각시얻으난
각시는 얼뜬보난 찢룩발일세
앞세워 걸어보난 모양도 좋다

쑥땅땅 걸작은 개머리빵
손털고 가는 놈은 담배없는 놈
보곰지 더듬고 가는놈은 돈없는 놈
해 바라보며 가는놈은 먼길 걸은놈
변또싸고 가는놈은 돈벌래 가는놈
웃으면서 가는놈은 새 딸 장가 가는 놈
예염보고 가는놈은 오줌누러 가는놈
시골처녀가 길을 가다가
담을 향하여 오줌을 싸니
거기 있던 개구리가
쑥들어 서며 오늘 비는
이다지도 따뜻하구나
콩당탕 쨍당탕 문을 두들이니
정든낭군 오신줄만 알았더니
지나가든 도갱이 주제 나를 속였구나
그때에 명월은 비치려구나

朝天里 下洞 金時鳳(女) 唱 1976年 10月 30日

- E 1 ~ E 5 : 金寶鉉, 「朝天誌」, 濟一印刷社, 1976.

< Summary >

Characteristics Of The Folk Songs Of Chochon

Chochon, a village characterized by folk songs, while located in the eastern part of Cheju Island, has interchanged with the mainland humanistically and materially. Chochon has functioned as the import center of the culture, and a number of the governors of Cheju Island and the expelled people from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ravelled through it, for which play folk songs were popular. In addition, labor songs which are the base of the folk song have been passed down by the lower classes of this village. Furthermore, the twofold structure of the village labor folk song has been passed down and the geographically characterized play folk song has also been handed down.

The summary is as follows;

(1) The reason why folk songs have continually been passed down is that there are groups of succession. The succession group is divided into two groups. One is the singer of the upper class, and the other is that of the labor group. Both groups of singers have coexisted in a place which has a geographical characteristic, and have succeeded to two different levels of songs; that is, the singers in the upper class have passed down play folk songs, while the singers in the labor class succeeded to labor songs based on their everyday life.

(2) The labor songs in Chochon; "Pulminorae", "Kkolbaeneun norae", "Kirmaeneun norae", "Chinsadi, Ahwegi, Jjoreunsadi",

"Myulchihurineun norae", "Manggun norae", and "Haenyo norae", and so on, have been found, among which "Manggun norae" has the peculiar characteristic of this area. Furthermore, the song has been sung in turn with "Ahwegi" out of play folk songs and "Kikkaeneun norae". The labor songs in Chochon don't have distinctively different forms from those of other areas, and during the work of making "Manggun" various kinds of songs have been sung, and in addition, play folk songs and labor songs have been sung in turn. The song, "Manggun norae", is an authentic song which shows the geographical feature of the place, and a feature which the other labor songs in this place have in common is songs of which the group of the succession of the labor class has lived ordinary lives for several generations.

(3) The play folk songs transcribed in Chochon are "Ahrirang", (Old Ahrirang), "Tongpungga", "Ohdolttogi", "Ahririridongdong", "Yopjeon sori", "Tambangui taryung", "Sowugetsori", "Ahwegi", "Kwanduckjungahp", "Yongbyunga", "Kaehwataryung", and so on. These songs have been passed down in many numbers in this area, with the place named "Sungeub" which was the capital for five hundred years during the Y dynasty. However, the songs have been found in every area including "Cheju City" and "Taejung", even if the number is just small, which shows the succession of the songs in the upper class interrelated with the culture of the Korean mainland. Due to the fact that the upper class area had got prostitutes, the songs were mainly sung by prostitutes at first, and the public sang the songs later, succeeded to and transferred by the ordinary people. Therefore, the present songs appear to have been handed down through the succession and transfer

of the labor clas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lay folk songs in this area and the folk songs on the mainland tends to require the study of the inter-sciences such as research in terms of music.

(4) As far as the classification of the folk songs is concerned, the area has got all kinds of folk songs. One type of "Kikkaeneun norae", "Hengaegi", seems not to have been transcribed. "Manggun norae" out of logging songs has characteristically been passed down in this area, and the play folk song as "Manggun norae" is often borrowed. The labor songs and the play folk songs have been sung in turn. "Kikkaeneun norae", and "Ahwegi" ("Kikkaeneun norae") among the labor songs, have been sung during the work of making "manggun". The similar kinds of songs to "Manggun norae" are the play folk songs such as "Yyahong", "Ahrirang", "Ahririridongdong" and "Tondpungga", the epic folk song like "Kwongnorae", and some of the labor songs.

(5) The succession of the fishery songs is poor because of the conscience of the bureaucracy. This is why Chochon in the past was the place through which the culture of the mainland was imported, which seems to mean that the people in this area had a firm bureaucratic conscience against the fishery work and women's diving work. Therefore the songs such as "Haenyo norae" and "Paetnorae" which originated from this place, have a tendency not to have been sung.

(6) "Ahwegi" and "Kwongnorae" are peculiar in that they have been passed down in unique forms. "Ahwegi" was sung in the name of "Kikkaeneun norae" to the melody of "Sowujetsori" in other places, or was usually sung including the words of "Kikkaeneun norae" in the

case of play songs. However, the song in Chochon was sometimes sung in the form of "Ahwegi" of "Kikkaeneun norae" or "Ahwegi" mixing the melody of "Swojetsori" and the words of a certain play folk song. "Kwongnorae", in this village seems to be classified as an epic folk song including the melody of the shamanitic song and satire of the human affairs through the personified pheasant. The song has different words to those of "Kwongnorae" in other places, and a perfect plot in terms of story.

(7) The play folk songs in Chochon which generally described love and romance have got the words of the miscellany folk songs of the mainland in common. This seems to show the fact that this place as a main import center had the ease to accept the culture of the mainland and the words of the song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lay folk songs in this area have an open attitude, compared with those in other places. In addition, the tendency that the play folk songs here include sexual words seems to reveal the open and liberal attitude of the people's life.

As mentioned above, the folk songs in Chochon are an example showing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folk songs in Cheju. This is due to the historic and human-geographical environment, and the life structure of the Chochon village.

Chochon, with all types of folk song succession such as labor songs, ballads, and kids' songs is the place where a general study of folk songs is possible. It has geographical features required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folk songs and the worker's society with the area of making artifacts like central government hats, especially caused by the suc-

cession of logging songs, in terms of folk. The study of the interchanges, the comparative study, and the transfer route between the folk songs in Sungeub and the songs on the mainland requires further research. The comparative research needs the study in terms of music for an inter-scientific base. The study has some limitations in that it is poor in the examination of the words of the folk songs in terms of literature, while covering only a village which means there is a deficiency in the comparative research among inter-places and it has not been done with field work, concerning about the songs on the mainland.

